

12

한국 육상경기
새로운 도약을 향해



1

육상경기 꿈나무 발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가 끝나자 이내 한국 육상경기의 중흥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앞서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이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를 계기로 삼성은 국내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기본 종목, 특히 육상경기 진흥에 대한 집중 지원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12년간 대한육상경기연맹을 이끌어온 박정기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1997년부터 연맹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7년 1월 28일, 서울 호텔 신라에서 삼성그룹 기계소그룹 부회장이던 이대원이 대한육상경기연맹 제20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한 지 5개월 만인 1997년 6월 한국 육상경기 중흥을 위한 '21세기 육상 강국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이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꿈나무 육성. 대한체육회와 체육부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위해 시작했지만 올림픽대회 이후 정체된 사업을 10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꿈나무 발굴은 육상경기에 소질을 갖춘 유망주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과 지원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후보와 대표선수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1997년 6월 3일부터 시작된 꿈나무 선발대회는 전북을 선두로, 6월 27일 강



이대원 단장이 2001년 5월 11일 동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선수단 결단식에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1차 150명의 꿈나무를 뽑았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였다. 이 선발대회에는 등록 선수 2000명과 비등록 선수 4000명 등 모두 60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어 2차로 6월 30일과 7월 1일 한국체육과학원 측정팀이 기초체력검사와 종합검진을 실시했고 7월 10일 최종 심사를 거쳐 80명의 꿈나무를 선발했다.

밀레니엄 육상경기 드림팀 발족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이와 함께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 우선 올림픽대회 금메달은 기존 포상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도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 국한되던 것을 확대해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대회에 준해 지급토록 하고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기록에만 지급하던 기록 포상금도 확대해 세계신기록에 1억 원, 아시아신기록에는 20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다양한 부문에서 육상경기에 대한 정비와 투자도 이뤄졌다.

육상경기 선진국의 기술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체계적인 육상경기 발전을 도모했다. 또한 초기에 육상경기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맹 관계자를 미국, 일본 등에 파견해 세부 항목을 조사하게 했다. 이 밖에 언론매체를 통한 육상경기 홍보를 강화하고 육상경기 전문지를 발간하여 육상경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여자 장거리 셋별 권은주 등장

1997년 4월 제5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2만m 경보에서 신일용이 1시간 27분 20초 35(종전기록 1시간 29분 21초 73)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고, 2위 유명배도 1시간 29분 00초 28을 마크해 종전 자신이 보유했던 한국 기록을 경신했다.

5월 부산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 남자 400m에서 손주일이 45초 84, 800m에서 김순형이 1분 46초 03, 10종경기에서는 김태근이 7372점으로 각각 우승을 했다. 특히 김순형은 1500m 한국기록 보유자로 800m에서는 이진일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다가 이 대회를 통해 기대주로 부각되었다.

6월 제2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권은주가 첫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장거리의 신데렐라'로 급부상했다. 권은주는 여자 5000m에서 16분 10초 49(종전기록 16분 37초 65)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고, 2위



1997년 한국 육상경기 여자 장거리의 셋별로 떠오른 권은주.

강순덕 16분 25초 17, 3위 오정희 16분 32초 41까지 모두 한국신기록이어서 당시 대한육상경기연맹이 파격적으로 올린 한국신기록 포상금(500만 원)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이진택이 2m 34(종전기록 2m 33)로 자신의 기록을 1cm 올리며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8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시칠리아 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경기에서 이진택이 2m 32로 1위를 했다. 이는 1991년 황영조(마라톤), 1993년 이영선(창던지기)에 이어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 번째 금메달로 기록되었다.

10월 제7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권은주가 이틀 연속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



1997년 6월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김완기(왼쪽)와 이영숙의 은퇴식. 김완기는 마라톤에서 여러 차례 한국최고기록을 경신했으나 선천적으로 오른쪽 다리가 2cm 짧아 부상에 시달리다 불가피하게 은퇴를 선택해야 했다. 여자 100m 한국기록 보유자인 이영숙은 1980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오랫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했다.

자 5000m에서 20km 로드레이스에서 1시간 08분 29초(중전기록 1시간 08분 59초)로 10년 만에 30초를 경신하며 우승했다.

1997년에는 16년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7차례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여자 단거리의 일인자 이영숙과 세 차례 마라톤 한국최고기록을 세운 김완기가 공식 은퇴했다.

1997년 국제육상경기연맹은 7월에 열리는 아테네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부터 세계기록을 경신하는 선수에게 우승 상금과는 별도로 10만 달러의 상금

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7월 그리스 아테나에서 열린 제7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단 한 개의 세계신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팀은 남자 높이뛰기의 이진택이 8위를 한 것이 최고 성적이며 기대했던 여자 창던지기의 이영선은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다만 일본의 스키 히로미가 2시간 29분 48초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여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흘 뒤 열린 취리히 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 남자 800m에서 덴마크의 윌슨 킵케터가 1분 41초 24(중전기록 1분 41초 73)로 16년 만에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킵케터는 11일 뒤 쾰른 그랑프리대회에서 또다시 1분 41초 11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8월 23일 브뤼셀 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 남자 5000m에서 에티오피아의 게브르셀라시에가 12분 39초 74(중전기록 12분 41초 86)로 새로운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1997년 8월 27일 베를린 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에서는 역대 최고의 육상경기 선수로 꼽히는 미국의 칼 루이스가 공식 은퇴를 했다. LA 올림픽대회 4관왕이며, 멀리뛰기 종목에서는 올림픽대회 4연패라는 기록을 세운 칼 루이스는 23년 동안 올림픽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7개의 금메달을 땀고, 9차례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1997년 남자 400m 일인자로 군림해온 미국의 마이클 존슨이 6월 열린 파리 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에서 8년 만에 66연승의 신화를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1998년 몰아친 외환위기는 전체 스포츠계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사회 각 분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단연 체육계의 타격도 컸다. 1998년 한국 필드하키의 메카 성남시립운동장이 폐쇄됐으며 군인 스포츠의 명맥을 이어 온 국군체육부대 상무가 준폐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했다. 특히 1997년부터 1998년 4월까지 19개 종목에서 50개 팀이 해체됐다. 이 때문에 남자 선수 212명과 여자 선수 143명이 스포츠 현장을 떠났고 감독 39명과 코치 35명이 직업을 잃었다. 그럼에도 육상경기 중흥을 위한 노력은 그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를 향한

효율적인 대표선수의 육성이었다.

취지는 대표팀을 육성하면서 이에 못지않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상비군으로 묶어 별도로 훈련시킴으로써 선수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린 선수들을 망라한 '밀레니엄 육상경기 드림팀'을 발족해 장학금과 훈련비를 지급하며, 특별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이런 노력은 외환위기로 잔뜩 움츠러든 육상경기계를 비롯한 국내 스포츠계에 활력소로 작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록의 사나이 이진일의 복귀

1995년 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던 이진일이 돌아왔다. 1997년 10월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복귀한 이진일은 1998년 3월 미국 전지훈련 중 참가한 샌디에이고 육상경기대회 남자 800m에서 우승한 뒤,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리버사이드육상경기대회에서는 1분 49초 39로 우승하며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실 이진일의 공백기에 한국 남자 중거리의 일인자는 김순형이었다. 김순형도 미국 전지훈련 중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칼폴리초청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800m에서 우승을 하며 이진일과 팽팽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

결국 12월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두 사람이 해냈다. 800m에서 이진일과 김순형이 나란히 금, 은메달을 딴 것. 이진일은 아시아경기대회 2연패의 영광과 함께 명예 회복에도 성공했다. 김순형은 남자 1500m에서도 은메달을 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1998년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이명선의 신기록 행진도 계속되었다. 5월 제27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신기록(17m 77)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15m 97로 21년 만에 대회신기록을 수립한 데 이어, 6월 방콕 아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창던지기에서 우승한 이명선이 시상대에 올라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시아경기대회 선발전 겸 제5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7m 85를 던져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남자 4×400m 릴레이에서 김재다·손주일·김호·김순형이 3분 06초 23(중전기록 3분 06초 36)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방콕 아시아경기대회를 코앞에 둔 12월 초 호주에서 전지훈련 중 참가한 인터클럽육상경기대회에서 이명선은 18m 57(중전기록 17m 88)로 생애 다섯 번째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7월 1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벌어진 제1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만m에서 백승도가 30분 12초 26으로 금메달을 땀다. 마라톤에서 2시간 10분 07초의 기록을 갖고 있던 백승도는 1만m로 종목을 바꿔 아시아 최강자가 된 것. 또 남자 4×400m 릴레이에서 한국팀은 3분 4초 44로 한국신기록(중전기

록 3분 6초 23)을 세우며 은메달을 땀다. 그러나 기대했던 높이뛰기의 이진택이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며 이 대회 4연패에 실패했다. 9월 말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10km 경보에서 김미정이 47분 40초(중전기록 48분 15초)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땀다.

기대 이상의 성과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한국 육상경기는 1998년 12월 제13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 은메달 3, 동메달 2개로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마라톤에서는 이봉주가 2시간 12분 32초로 우승을 했다. 이로써 한국은 1990년 김원탁, 1994년 황영조에 이어 아시아경기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1998년 베이징마라톤 우승자인 북한의 김중원은 2시간 16분 30초로 동메달을 땀다. 이영선은 여자 창던지기에서, 이진택은 높이뛰기에서 각각 우승했다. 이진일은 800m에서 금메달을 따 한국은 이 종목에서 4연패의 위업을 실현했다. 또 김순형은 800m와 1500m에서 거꾸 은메달을 추가한 데 이어 김철균은 장대 높이뛰기에서, 백승도 역시 50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가장 감회가 깊었던 선수는 바로 이진일이었다. 그는 '한국 육상경기의 희망', '기록의 사나이'로 불리며 아시아 육상경기 800m에서 적수를 찾을 수 없었다. 이진일은 4년 전인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 800m와 4×400m 릴레이 레이스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대회 800m에서는 1분 45초 72의 대회신기록도 작성했다. 그해 아시아신기록을 1분 44초 14로 단축하는 상승세도 이어갔다.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세계 랭킹 7위로 인정됐을 때 1998년 애틀랜타 올림픽대회 입상도 충분히 보였다.

그런데 이진일은 앞서 1995년 불운을 겪어야 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불시에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약물 양성반응이 나온 것. 그는 감기약을 먹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4년 자격정지를 부과했다. 그러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의 노력으로 2년 만에 복권된 이진일은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한국 여자 경보를 이끈 김미정

1999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에서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새로운 종목에서의 기회 선점을 위해 3개 종목을 최초로 실시했다. 처음 실시된 종목은 여자 장대높이뛰기(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일반), 여자 해머던지기(고·대·일반), 그리고 중학교 세단뛰기이다. 이 종목들은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1995년부터, 아시아육상경기연맹에서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1999년 김미정은 한국 여자 경보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5월 제28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5000m 경보에서 22분 38초 14(중전기록 23분 05초 61)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6월 제5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km 경보에서 47분 19초로 1998년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47분 40초를 21초 앞당기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김미정은 제80회 인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46분 55초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생애 5번째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포환던지기의 이명선은 제28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8m 79로 1998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18m 57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우승을 했다.

1999년 7월 스페인 팔마에서 벌어진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이진택이 2m 28로 동메달을 따며 한국팀은 종합 순위 13위를 했다.

8월 25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벌어진 제7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포



전국체육대회 남자 400m에서 11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던 손주일. 1998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남자 400m 경기 모습.

환던지기에서 이명선이 2차 시기에서 18m 37을 던져 한국 육상경기 사상 처음으로 결선 진출에 성공하며 세계 톱 10에 진입했다. 남자 높이뛰기의 유망주 이진택은 2m 29로 6위를 차지하는 성적을 거뒀다. 남자 800m의 김순형은 준결선까지 오르는 투혼을 발휘해 육상경기인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마라톤 하나만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다시피 한 한국 육상경기계로선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것이었다.

10월 인천에서 열린 제80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신일용이 1시간 23분 00초(중전기록 1시간 25분 12초)로 7년 만에 나온 한국신기록이자 올림픽대회 기준기록과 타이기록을 세웠다. 여자 세단뛰기에서는 이정선이 13m 37(중전기록 13m 15)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자 4×400m 릴레이에서 한민희·한선희·강혜민·박경진으로 구성된 인천팀이 3분 44초 97(중전기록 3



2000년 여자 400m 허들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최해남.

분 46초 37)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이 대회에서 손주일이 남자 400m에서 48초 22로 1위를 하며 전국체육대회 11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1999년 9월 8일 남자 100m 한국기록 보유자인 정기선 대한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가 세상을 떠났다. 정기선은 1966년 제5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10초 3의 기록으로 1939년 김유택이 기록한 10초 5를 39년 만에 깼다. 1979년 서말구가 한국 타이기록을 세웠으나 이후로도 그의 기록을 넘어선 선수가 없었다. 또 은퇴와 복귀를 거듭했던 여자 100m 한국기록 보유자인 이영숙이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면서 100m 남녀 한국기록 보유자가 무대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2000년은 그야말로 한국신기록의 해였다. 한국신기록이 22개나 쏟아져 지난 10년간 3번째로 많은 해로 기록됐다.

2000년 2월 도쿄 국제마라톤에서 이봉주가 2시간 7분 20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운 데 이어 5월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도 6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와 새로운 한국 육상경기 중흥기가 시작됐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특히 제29회 전국종

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 세단뛰기와 400m 허들에서 한국신기록이 나온 것이 주목할 만했다. 여자 400m 허들에서 최해남이 59초 13(중전기록 59초 50)으로 6년 7개월 만에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세단뛰기에서는 이영선이 13m 60(중전기록 13m 37)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4월 제4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창던지기에서 이영선이 57m 91(중전기록 56m 80)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시드니 올림픽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4월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시드니 올림픽대회 파견 선수 선발전에 번외로 참가한 이명선이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19m 36로 숙원이었던 19m의 벽을 돌파하며 한국기록을 8번째 경신했다. 5월 제54회 전국대학대항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창던지기에서 이영선이 58m 15를 던져 4월 21일 실업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 57m 91을 21cm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2000년 6월 2일 삼성전자 육상팀이 창단했다. 이봉주·권은주·오정희·손문규 등 마라톤 4명과 정기희·김수경 등 경보 유망주 2명, 임상규·오인환(이상 마라톤), 김지수(경보) 코치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고, 초대단장에는 장형옥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이사가 임명되었다.

6월 제5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20km 경보에서 김미정이 1시간 38분 57초로 5월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 1시간 39분 20초를 23초 앞당기며 7번째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김미정은 시드니 올림픽대회에서도 1시간 36분 9초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25위를 했다.

6월 제28회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14세 여중생 최윤희가 3m 40으로 종전 한국기록 3m 30을 넘어서며 우승했다.

2000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창던지기에서 이영선이 55m 78로 우승했으나 자신이 세운 58m 15의 기록 경신에는 실패했다. 대신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장복심이 51m 68로 5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최고기록 48m 12를 3m 56



2000년 6월 2일 창단식을 한 삼성전자 육상팀 소속 선수들. 이봉주, 손문규, 정기희, 권은주, 오정희, 김수경(왼쪽부터).

이나 경신했다. 8월 제12회 전국실업단육상경기대회 남자 원반던지기에서 김영철이 55m 91(중전기록 54m 04)로 6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2000년 10월 23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8회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창던지기 결선에서 19세의 박재명이 72m 36을 던져 동메달을 땀다.

그러나 10월 경기도에서 열린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 종목에서는 한국신기록 작성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마라톤 기록은 뒷걸음칠 처 세계기록과 더 큰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다.

12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황영조 감독을 영입해 마라톤팀을 창단했다.

장대높이뛰기 안유림과 최윤희의 신기록 경쟁

2000년과 2001년 사이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는 흥미로운 기록 경쟁이 벌어졌다. 고교생 안유림과 여중생 최윤희가 9개월 사이 번갈아가며 5차례나 한국기록을 경신한 것. 2000년 6월 전국선수권대회에서 안유림이 3m 30을 뛰자, 8일 뒤 열린 제28회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최윤희가 3m 40으로 다시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9월 문화관광부장관기대회에서 안유림이 3m 42(중전기록 3m 40)로 한국신기록을 다시 썼고, 2001년 2월 대만 국제여자장대높이뛰기대회에서 최윤희가 3m 50을 뛰어넘은 것.

2001년 3월 대한육상경기연맹은 기록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당시 육상경기 한국신기록에서 10년 이상 깨지지 않고 있는 종목은 모두 16개, 5년 이상 묵은 기록도 12개, 4년 이하는 17개. 이렇게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있는 해묵은 기록의 경신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세우기 시작했다. 세계기록과는 차이가 있는 트랙 및 필드 부문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력 향상 포상제' 등 중장기 기록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4월 17일 기록 경신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아내던 새 집행부에 드디어 희망의 승전보가 들려온다. 이봉주가 제105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며 51년 만에 금메달을 안겨 준 것이다. 한국최고기록(2시간 7분 20초) 보유자인 이봉주는 4월 17일 새벽 1시(한국시간) 미국 보스턴 시내 42.195km에서 열린 남자부 레이스에서 32km 지점인 심장파열의 언덕(하트 브레이크 힐)에서 에콰도르의 실비오 구에라, 케냐의 조슈아 셀랑카와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마지막 2km를 남겨 놓고 스피트를 시작한 이봉주는 독주에 들어가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보스턴마라톤대회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로, 1947년 제51회 대회에서 서윤복 대한육상경기연맹 고문이, 1950년 제54회 대회에서는 함기용 대한육상경기연맹 고문이 우승한 바 있어 육상경기인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한국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간판 스타인 최윤희.

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대회다.

같은 날 남자 포환던지기에서도 6년 만에 한국신기록이 나와 한국 육상경기의 미래를 밝게 했다. 4월 17일 속초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남자 포환던지기 국가대표인 김재일이 18m 10을 던져 1995년 5월 23일 필리핀에서 이승훈이 세운 18m 09의 기록을 1cm 더 늘리며 6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김재일(본인 최고기록 17m 85, 2000년 6월 9일)은 그동안 6개의 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는 데 그쳤으나 6년 만에 18m 대에 진입해, 향후 여자 포환던지기에 이어 남자 포환던지기에서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김미정(가운데)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 여자경보 20km에서 1시간 36분 9초로 종전 한국기록을 2분 28초 단축하며 선전했다. 그는 3년 뒤인 2003년 일본선수권대회에서 1시간 33분 58초로 2위를 차지했다.

5월 제30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20km 경보에서는 김미정이 1시간 35분 22초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최고기록(1시간 36분 8초)을 41초 앞당기는 데 성공했고, 남자 20km 경보에서는 신일용이 1시간 22분 25초로 역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 1시간 23분 00초를 35초 앞당겼다. 오사카 동아시아대회 남자 높이뛰기에 참가한 이진택은 2m 23을 넘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1997년 7월 대한육상경기연맹 꿈나무 1기로 선발된 이민원(중학교 1학년)은

그로부터 4년 뒤인 2001년 7월 충남체고 2학년으로 헝가리 테레센에서 열린 제2회 세계청소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대회 사흘째인 7월 14일(한국 시간) 남자 포환던지기 결선 6차 시기에서 19m 57을 던져 이바노프 조지(19m 73·불가리아), 이브라힘 야세르(19m 58·이집트)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국 육상경기가 청소년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은 1998년 IOC가 주관하는 종합대회인 세계청소년게임(World Youth Games)에서 남자 높이뛰기의 정수광(당시 경북기계공고)이 3위로 입상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쾌거였다.

해마다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총 222명의 꿈나무 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해온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이와 함께 2단계 사업으로 꿈나무는 물론 만 20세 미만의 주니어 선수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1년 6월 28일과 29일 대전 한밭종합경기장에서 제1회 한국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꿈나무와 주니어 선수가 연계된 육성사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한다.

2001년 8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열린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마라톤에 한국 선수로는 처음 참가한 윤선숙이 2시간 33분 9초로 16위를 했다. 한국 기록만 10번 경신한 김미정은 여자 20km 경보에서 1시간 35분 30초로 자신의 최고기록에 8초 뒤진 기록으로 14위를 했다. 한편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진 제21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이명선이 18m 79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0월 충남에서 열린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멀리뛰기에서 김수연이 6m 34로 2000년 5월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 6m 32를 넘어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 대회에서 남자 높이뛰기의 이진택은 11연패, 여자 포환던지기의 이명선은 8연패에 성공했다.

2001년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남자 마라톤에서 1위를 한 이의수에게 돌아갔다. 이의수는 형재영과 치열한 선두 다툼 끝에 35km 지점에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와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록은 2시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 4연패

간 19분 37초.

전국체육대회 MVP는 1주일간의 경기 일정 속에 저마다 최선을 다해온 2만 2000여 명의 참가선수 중 단 한 명만이 선정되는데 신문·통신·방송기자단이 폐막일 투표를 해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선수를 MVP로 선정한다.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와 값진 기록을 세운 선수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최우수선수가 선정되기 때문에 일단 다관왕에 오른 선수가 MVP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국체육대회 MVP는 상금이 없어 더욱 명예로운 상으로 인식되었다.

2002년에는 여자 하프마라톤에서 1시간 12분 13초로 한국최고기록(종전기록 1시간 12분 15초)을 세운 배해진이 MVP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오른손이 없는 창던지기 선수 허희선이 MVP로 선정되어, 육상경기 부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 MVP가 나오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일반인 대상 마라톤대회가 열려 2000년 45개 대회였던 것이 2001년에는 75개까지 늘어났다. 전국 각처 동호인단체 및 클럽 별로 주최하는 비공식 대회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다는 계산도 나왔다.

2001년 2월 21일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동메달리스트이자 체육계 원로인 남승룡의 타계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7월 8일에는 황영조와 이봉주 등을 키워낸 '한국 마라톤의 대부' 정봉수 감독이 세상을 떠났다.

2002년 4월 제6회 전국실업선수권대회에서도 한국신기록이 잇따라 작성되었다. 남자 창던지기의 박재명이 80m 96(종전기록 79m 84)으로 4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내며 우승했다. 이 기록은 아시아 랭킹 3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시아경기대회 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남자 포환던지기의 김재일은 18m 14로 자신이 세운 종전기록(18m 10)을 깼고, 남자 1만m 경보에서도 김동영이 41분 25초 24(종전기록 41분 35초 91)을 3년 만에 깼다.

5월 제3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포환던지기의 김재일이 하루에 4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1차 시기 18m 25, 2차 18m 23, 3차 18m 38, 4차 18m 47로 한 달 만에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 18m 14를 깨뜨렸다. 여자 창던지기에서는 이영선이 58m 17(종전기록 58m 15)로 개인통산 7번째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김승연은 54m 17(종전기록 53m 13)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장복심도 자신이 세운 전 기록을 깨며 54m 07을 던졌다.

2002년 6월 여자 해머던지기의 장복심이 한 경기에서 한국신기록을 4개나 수립했다. 장복심은 제5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총 6번의 시도 중 2차



2002년 제3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나란히 한국 신기록을 작성한 장복심(왼쪽)과 김승연.



2002년 제3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하루에 4차례 한국기록을 새로 쓴 김재일.

54m 63, 3차와 4차 54m 95, 6차 54m 44로 종전기록 54m 17을 4번이나 경신했다. 4월 14일 일본 와지마대회 여자 20km 경보에서 김미정이 1시간 34분 47초(종전기록 1시간 35분 22초)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2위를 했다.

7월 제9회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창던지기에서 정상진이 73m 99로 동메달을 땀다. 8월 11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김세인이 은메달을 땀고, 남자 20km 경보의 신일용, 남자 창던지기의 박재명, 남자 포환던지기의 김재일, 여자 창던지기의 이영선은 각각 동메달을 땀다. 11월 제주에서 열린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하프마라톤(21.0975km)에서 배해진이 1시간 12분 13초(종전기록 1시간 12분 15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는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은 81명의 육상경기

선수단을 꾸려 3개 종목에서 2연패를 차지했다. 최종적으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 육상경기 부문 종합 5위에 올랐다. 대회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 이봉주는 처음부터 독주를 펼쳐 2시간 14분 4초로 피니시라인을 넘어 대회 2연패와 한국의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 연속 4회 우승의 쾌거를 안겨 줬다.

이진택은 높이뛰기에서 2m 23을 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특히 높이뛰기에서는 김태희와 중국의 왕주주, 추이카이가 모두 2m 19를 한 차례 실수도 없이 넘어 3명이 모두 은메달을 따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영선도 여자 창던지기에서 58m 87로 종전 한국기록을 70cm나 경신하며 우승해 2연패 대열에 합류했다.

이명선은 여자 포환던지기 5차 시기에서 18m 50을 던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2연패에 성공한 여자 창던지기의 이영선,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창던지기 금메달리스트 박재명,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110m 허들의 동메달리스트인 박태경(왼쪽),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MVP에 허희선.



북한 응원단 취주악대가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응원을 위해 부산항에 도착한 뒤 행진하고 있다.

한국이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1974년 방콕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아시아의 마녀' 백옥자가 금메달을 목에 건 지 28년 만의 일이었다. 남자 110m 허들에서는 박태경이 13초 89를 찍어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처음으로 트랙 부문 동메달을 따내 육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의 기록은 종전 한국기록인 13초 95를 0.06초 앞당긴 것이었다. 이 대회에서 한국 육상경기는 110m 허들의 박태경과 여자 창던지기의 이영선, 1만m의 정윤희, 해머던지기의 장복심, 4×400m 릴레이의 김동현·이윤경·박종경·최해남 등이 5개의 한국신기록을 쏟아 냈다.

2002년 11월 15일 베를린 올림픽대회의 영웅 손기정이 타계했다.

남자 110m 허들 박태경의 약진

2003년 4월 6일 세계 14개국 15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서울국제여자역전마라톤에서 러시아가 9연패를 달성했고 한국은 4위로 선전했다.

4월 제32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창던지기에서 박재명이 81m 46(종전기록 80m 96)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박재명은 이미 2002년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기준기록 80m 80을 넘는 상태. 또 이 대회 남자 해머던지기에서 이윤철이 64m 68(종전기록 64m 28)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윤철은 6월 대전에서 열린 제5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65m 95를 던져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더니, 10월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67m 05로 또 다시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제84회 전국체육대회 MVP는 남자 창던지기에서 은메달을 딴 허희선에게 돌아갔다. 허희선은 1위 박재명보다 0.7m 뒤진 75m 57의 기록으로 2위에 머물렀지만 어릴 때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장애인 선수로서 큰 박수를 받았다.

제5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는 이대호가 1시간 21분 52초(종전기록 1시간 22분 25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여자 20km 경보에서 김미정도 1시간 33분 3초(종전기록 1시간 33분 58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웠다. 김미정은 앞서 4월 20일에 열린 일본 경보선수권대회 20km에서 1시간 33분 58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우며 아쉬운 2위를 했고, 제7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여자 1만m 경보에서도 45분 18초 86(종전기록 48분 20초 51)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7월 육상경기 꿈나무인 신보라가 캐나다 서브룩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여자 창던지기에서 53m 74로 사상 첫 은메달을 땀다. 그때까지 한국 육상경기가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것은 2001년 이민원이 포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딴 것이 유일했다.

8월 제15회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이윤경이 여자 400m와 400m 허



◀ 2003년 여자 400m와 400m 허들에서 모두 한국신기록을 세운 이윤경. 사진은 2004년 제8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해외 파견선수 선발대회 400m 경기 모습.
▶ 남자 높이뛰기에서 이진택의 그늘에 가려 '만년 2인자'였던 배경호가 2002년 전국체육대회에서 2m 24를 넘으며 금메달을 따는 모습.

들에서 연거푸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윤경은 여자 400m에서 53초 67(종전기록 54초 60)으로 13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다음날 400m 허들에서도 57초 90(종전기록 58초 2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9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10m 허들에서 박태경이 13초 71(종전기록 13초 76)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은메달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정한 B기준기록 13초 72를 통과해 2004년 아테네 올림픽대회 본선 출전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박태경은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3초 89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땀고,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13초 76으로 역시 한국신기록으로 동메달을 딴 데 이어 9월 13초 71로 한 해에 3차례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특히 유니버시아드 동메달은 한국이 트랙 종목에서 18년 만에 딴 메달. 이 대회에서 여자 포환던지기의 이명선은 17m 58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기대주인 최윤희도 연거푸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6월 제31회 KBS배육상경기대회 겸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프레대회에서 3m 51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8월 제32회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에서 1차시기 3m 52, 2차시기 3m 60으로 하루 만에 2차례 한국신기록을 세워 '넘었다 하면 한국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제15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박태경 외에 남자 높이뛰기의 배경호가 2m 18로 은메달, 여자 창던지기의 장정연이 53m 23으로 역시 은메달을 땀다.

9월 부산국제육상경기대회를 끝으로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이었던 이진택이 은퇴했다. 이진택은 1992년 이후 한국기록을 6차례나 경신하고 아시아경기대회와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바 있다.

2003년 세계무대에서는 러시아의 샷별 엘레나 이신바예바의 여자 장대높이뛰기 신기록 행진이 시작되었다. 이신바예바는 2003년 7월 영국 게이트시어드에서 열린 2003 슈퍼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4m 82(중전기록 4m 81)로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이후 러시아의 스페틀라나 페오파노바, 미국의 스테이시 드래길라와 함께 기록 경쟁을 벌였으나 이신바예바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대회에서 4m 91을 뛰어넘으며 최고의 스타가 된 뒤 거의 그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이신바예바는 2004년 한 해에만 무려 8차례 세계기록을 경신해 국제육상경기연맹에 의해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여자 마라톤에서는 영국의 폴라 래드클리프가 2시간 15분대 시대를 열었다. 2003년 런던마라톤에서 래드클리프는 2시간 15분 25초로 자신이 세운 종전 세계기록 2시간 17분 18초를 1분 53초나 앞당겼다.

9월 베를린마라톤에서 케냐의 폴 터갓이 꿈의 기록으로 불리던 2시간 4분대 진입에 성공했다. 그의 기록 2시간 4분 55초는 100m를 평균 17초 76으로 쉽게 달려야 하는 경이적인 기록이었다.



◀ 2004년 여자 창던지기에서 한국신기록 행진을 계속한 장정연.
▶ 2004년 아테네 올림픽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박형진의 경기 모습.

2004년에도 '넘었다 하면 한국신' 최윤희

2004년은 여자 장대높이뛰기 최윤희의 해였다. 4월 20일 제33회 전국종별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3m 61(중전기록 3m 60)을 뛰어넘었고, 4월 28일 봄철 중고육상경기대회에서 3m 65, 5월 12일 제4회 한국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3m 66를 넘었다. 6월 1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3m 80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3위를 차지했다. 9월 추계중고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3m 91, 10월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3m 82로 한국신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여자 창던지기의 장정연의 신기록 행진도 눈부셨다. 4월 9일 전국실업선수권



◀ 한국 육상경기의 희망으로 떠오른 경보 선수들이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는 모습. 왼쪽부터 변영준, 임정현, 김현섭, 김동영, 박철성.

▶ 2004년 아테네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역주하는 이은정.

서는 60m 92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 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박형진은 16m 66으로 올림픽대회 B기준기록(16m 55)를 통과했다.

남자 단거리에서는 강태석과 전덕형의 라이벌 구도가 눈길을 끌었다. 제33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0m에서 강태석은 10초 63, 전덕형은 10초 65에 머물러 한국기록(10초 34)을 깨는 데는 실패했지만 맞대결로 인한 긴장감이 팽배했다.

남자 창던지기의 박재명은 2004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 참가한 뉴질랜드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시즌 첫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1위를 했다. 그가 세운

새 한국기록은 83m 99(중전기록 81m 46)로 세계 3위, 아시아 1위에 해당한다.

세계무대에서 한국 경보의 메달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2004년 4월 8일 제8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만m에서 신일용이 39분 58초 88(중전기록 40분 18초 14)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5월 2일 독일 나움버그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세계경보대회 남자 50km에서 김동영이 3시간 58분 00로 올림픽 기준기록 4시간 00를 통과해, 한국 육상경기 사상 처음으로 50km 경보 참가 티켓을 따냈다. 7월 18일 이탈리아 그로세토에서 열린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km 경보에서 김현섭이 40분 59초 24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이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경보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처음이다.

2004년 6월 11일 아테네 올림픽대회 최종 선발전 및 제58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800m에서 이재훈이 1분 46초 79로 올림픽 B기준기록(1분 47초 00)을 돌파하며 아테네 올림픽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 육상경기는 올림픽대회에 18명의 선수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16일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전미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김유석이 5m 60(중전기록 5m 55)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9월 24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제2회 부산국제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아테네 올림픽대회 메달리스트와 한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20개국 132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15개 종목(남자 9, 여자 6)의 결승경기만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대회는 아테네 올림픽대회 200m 금메달리스트인 슌 크로퍼드와 시드니 올림픽대회 챔피언인 모리스 그린의 100m 대결. 이들의 단거리 빅매치를 보기 위해 무려 3만여 명의 관중이 모여들었고, 승리는 크로퍼드의 몫이었다. 또 여자 100m 허들에서는 이연경이 16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다. 이연경은 13초 47(중전기록 13초 63)의 기록으로 1988년 방신혜가 세운 한국기록(13초 63)을 0.16초 앞당겼다. 남자 110m 허들

점점 높아지는 세계의 벽

에서 박태경은 14초 02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역시 세계의 벽은 높았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28회 올림픽대회 육상경기 종목에 한국은 18명이 참가했으나 단 한 종목에서도 입상하지 못했다.

10월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5000m에서 이은정이 15분 54초 44(종전기록 16분 7초 52)로 5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새로 쓰며 우승했다. 이은정은 2004년 동아마라톤에서도 1위를 했고,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에서 19위를 한 바 있다. 여자 멀리뛰기의 김수연도 6m 38(종전기록 6m 3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2004년 1월 13일 원로 육상경기인이자 고 손기정의 사위였던 이창훈이 별세했다. 그는 1958년 제3회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땀다.

2005년 2월 16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사장이던 신필열이 대한육상경기연맹 제21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앞서 8년간 대한육상경기연맹을 이끈 이대원 회장의 뒤를 이어 한국 육상경기의 세계적 위상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육상경기가 '한국 스포츠의 1번지'를 넘어 최고 인기 종목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 회장은 우선 전임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꿈나무 육성사업을 확대 계승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벌어지는 국제대회에 적극적으로 선수단을 파견해 최고 기량의 외국 선수들과 경기 경험을 쌓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전지훈련을 보내 현지 적응 부족으로 성적이 부진한 폐단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당근책도 마련됐다. 마라톤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선수에게 1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한편,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는 선수에게는 10억 원의 상금을 준다는 파격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2005년 3월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김유석이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MPSF 실내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해 5m 61(종전기록 5m 60)로 자신이 세운 한국



신필열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2009년 1월 13일 동아마라톤 꿈나무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선발된 꿈나무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기록을 1cm 끌어올리며 우승을 했다.

4월 6일 목포에서 열린 제9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만m 경보에서 김현섭이 39분 41초 94(중전기록 39분 58초 88)로 한국신기록을 새로 썼다.

4월 19일 제3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최윤희가 4m의 벽을 돌파하며 생애 통산 12번째 한국신기록을 달성했다. 여자 멀리뛰기 정순옥도 6m 41(중전기록 6m 38)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자 20km 경보의 김미정은 1시간 32분 15초(중전기록 1시간 33분 3초)로 역시 한국최고기록을 세웠다. 여자 100m 허들의 이연경은 13초 38로 2004년 부산국제육상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 13초 47을 다시 경신했다. 이연경은 6월 3일 제 59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3초 33으로 또 다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200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남자 단거리에서 한국신기록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단거리의 희망 전덕형이 20년 묵은 남자 200m 한국기록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전덕형은 5월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20초 98로 장재근 이후

20년 만에 20초대 진입에 성공했고, 10월 16일 울산에서 열린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0초 95로 기록을 단축했으나 끝내 장재근의 한국신기록(20초 41)을 뛰어넘는 데는 실패했다. 100m에서도 전덕형의 기록은 10초 62(한국기록 10초 34)에서 멈췄다.

6월 25일 일본디스턴스챌린지 3차대회 여자 5000m에서 이은정이 15분 42초 62(중전기록 15분 54초 44)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6월 29일 4차대회 여자 1만m에서도 32분 43초 35(중전기록 32분 46초 54)로 한국신기록을 세워, 하프마라톤에서 1시간 11분 15초의 한국최고기록과 함께 5000m, 1만m에서 한국기록 보유자가 되었다. 이은정은 8월 20일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여자 하프마라톤에서도 1시간 14분 31초로 금메달을 땀다. 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김현섭이 은메달을 추가했다.

200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세단뛰기 김덕현의 활약

9월 1일부터 나흘간 인천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세계의 벽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벽도 만만치 않음을 실감해야 했다. 대회 마지막 날 여자 창던지기에서 박호현이 55m 58로 금메달을 딴 것이 유일했고 은메달 7개, 동메달 1개에 그쳤다. 그나마 여자 5000m에서 이은정이 15분 41초 67(중전기록 15분 42초 62),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최윤희가 4m 5(중전기록 4m)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것이 큰 성과였다. 여자 100m 허들에서 이연경은 13초 38로 한국 육상경기 사상 첫 은메달을 땀다. 남자 20km 경보에서도 김현섭이 1시간 25분 41초로 은메달을 땀다.

2005년 남자 세단뛰기에서 김덕현의 활약도 눈부셨다. 인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덕현은 16m 78(중전기록 16m 73)로 11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1월 제4회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16m

79로 또다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다. 동아시아경기대회 남자 800m의 이재훈(1분 48초 60)과 10종경기의 김건우(7754점)도 나란히 금메달을 땀다.

2005년 여자 포환던지기의 간판 이명선은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7m 05(자신이 세운 한국기록은 19m 36)를 던지며 1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또 남자 원반던지기에서 최종범이 57m 27로 5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작성했고, 여자 20km 경보에서 김미정이 1시간 31분 39초(중전기록 1시간 32분 15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우며 이 대회 5연패를 했다. 이로써 김미정은 지난 7년간 20km 경보를 비롯해 10km 경보, 트랙경기 1만m, 5000m에서 모두 18차례나 한국기록을 경신했다.

9월 23일에는 2011년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를 목표로 대구에서 국제육상경기대회를 개최했다. 25개국 140명의 선수가 참가해 1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는데 하이라이트는 남자 100m. 미국의 게이틀린이 10초 26(개인 최고 기록 9초 85)이 저조한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신기록 경신을 기대했던 여자 110m 허들의 이연경은 13초 52(2위), 장대높이뛰기의 최윤희(5위)는 31m 81로 새 기록 작성에는 실패했다.

2005년 세계무대에서는 이신바예바가 '마의 5m 벽'을 깨며 2년 연속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6월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치클리티아 슈퍼그랑프리대회 남자 100m에서 자메이카의 아사파 파월이 9초 77(중전기록 9초 78)로 2년 9개월 만에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남자 100m 세계기록 보유자였던 미국의 몽고메리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출전정지와 함께 2002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운 세계기록 9초 78을 비롯해 5년간의 기록과 메달이 모두 무효처리 되었다.

2005년 8월 29일 원로 육상경기인 서영주 씨가 별세했다. 그는 1958년 제3회 도쿄 아시아경기대회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땀고, 우승 당시 7m 54는 아시아신기록이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남자 100m 한국신기록

2006년 12월 도하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은 기록 향상과 메달 획득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대한육상경기연맹 신필열 회장은 한국 남자 마라톤이나 100m 한국기록을 세우는 선수에게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포상금은 끝내 주인을 찾지 못했다. 2006년 8월 일본 도야마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에서 임희남이 10초 44를 기록하고, 11월 일본 하마마쓰육상경기대회에서 10초 45를 찍은 것이 시즌 최고기록이었다.

2006년 한국신기록 작성의 첫 출발은 마라토너 강순덕이 끊었다. 1월 30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열린 3M하프마라톤대회 여자부에서 강순덕은 21.0975km



◀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은메달을 딴 김현섭(왼쪽).

▶ 한국 여자 마라톤에서 이은정과 함께 양강 체제를 이뤘던 강순덕. 사진은 2006년 미국 3M하프마라톤대회 여자부에서 1시간 10분 02초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할 때의 모습.

를 1시간 10분 02초(중전기록 1시간 11분 15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우며 한국 여자 마라톤의 강순덕, 이은정 양강 체제를 구축했다.

3월 한국 경보는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1월 29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경보 선수권대회 남자 20km에서 김현섭이 우승을 한 데 이어, 3월 26일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제25회 유럽육상경기연맹 경보대회에서도 1시간 22분 6초로 우승을 한 것.

4월 제35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원반던지기에서 최종범이 57m 48(중전기록 57m 27)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자 해머던지기의 장복심도 57m 88(중전기록 56m 82)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벌써 9번째 한국신기록이었다.

5월 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야마자키그랑프리대회 여자 멀리뛰기에서 정순옥이 6m 52(중전기록 6m 41)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등수는 5위에 그쳤다. 그러나 5월 제6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수연이 6m 53을 뛰어 정순옥의 기록을 갈아치웠고, 정순옥은 6m 51로 그 뒤를 이었다. 김수연은 여자 세단뛰기에서도 13m 92(중전기록 13m 60)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이 되었다. 이처럼 치열한 라이벌 구도 속에 기록은 더욱 단축되었다. 정순옥은 9월 대구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연거푸 2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종경기에서 김건우는 7824점으로 통산 자신의 3번째 한국기록을 세웠다.

6월 10일 홋카이도에서 열린 호크렌디스텐스첼린지대회 남자 5000m에서 한국 장거리 기대주인 지영준이 13분 49초 99(중전기록 13분 50초 35)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4위를 했다. 6월 15일 제10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손현이 18m 51(중전기록 18m 47)로 4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8월 9일 제18회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남녀 해머던지기에서 각각 한



◀ 김수연과 정순옥은 2000년대 들어 여자 멀리뛰기에서 치열하게 기록 경쟁을 벌였다. 2006년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멀리뛰기를 하고 있는 김수연.
▶ 2008년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정순옥이 멀리뛰기를 하는 모습.



남자 10종경기의 간판스타 김건우. 사진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 대회 때의 모습.

국신기록이 나왔다. 이윤철이 67m 87(중전기록 67m 05), 장복심이 57m 96(중전기록 57m 88)을 던진 것.

8월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00m 허들에서 정혜림이 14초 08로 한국선수로는 처음 트랙 종목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다. 여자 창던지기에서는 김경애가 50m 37로 결승에 진출했다.

남자 세단뛰기의 김덕현은 9월 24일 요코하마 육상경기대회에서 16m 88(중전기록 16m 79)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7m 07로 '마의 17m 벽'을 돌파했다. 10종경기에서 김건우가 7483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 대회 7연패에 성공했다.

2006년 9월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이신바예바는

세계기록 달성에 실패했으나 금메달을 땀고, 남자 110m 허들에서는 중국의 류시양이 폭발적인 스피트로 1위를 차지했다. 남자 세단뛰기의 김덕현도 16m 81로 금메달을 땀다. 이 대회에서 한국이 따낸 유일한 금메달이었다. 대신 여자 멀리뛰기에서 정순옥이 1차 시기에서 6m 55(중전기록 6m 53)를 뛰어넘더니, 4차 시기에서 6m 68로 한국신기록을 2개나 작성했다.

2006년 12월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 종목에는 4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지만 한국은 단 한 개에 만족해야 했다. 유일한 금메달의 주인공인 남자 창던지기의 박재명은 79m 30을 던졌다. 남자 20km 경보에서 김현섭이 1시간 23분 12초로 은메달을 땀다. 여자 100m 허들에서는 이연경이 13초 23(중전기록 13초 33)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땀고, 10종경기의 김건우와 남자 세단뛰기의 김덕현도 동메달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2000년대 한국에는 마라톤 열풍이 불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자 국내 달리기 인구가 조깅 인구까지 합쳐 6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달리기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 이에 힘입어 각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달리기 대회가 크게 늘면서 러닝화 등 관련 스포츠 산업의 매출도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06년 10월 경북에서 열리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부터 마라톤에 각 시도를 대표하는 엘리트 선수가 아닌 마스터스 마라토너들도 참가시키기로 했다. 2006년은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을 제패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각종 행사도 함께 열렸다.

2006년 1월 16일 국내 체육 발전에 초석을 놓은 민관식 전 대한체육회 회장이 88세로 타계했다. 그는 육상, 축구, 테니스, 탁구, 정구 협회 등 5개 종목에 걸쳐 단체장 직을 맡은 명실상부한 한국 스포츠계의 대부였다.

2006년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류시양이 남자 110m 허들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7월 12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슈퍼그랑프리대회

에서 류시양은 12초 88(중전기록 12초 91)을 기록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회 남자 100m 금메달리스트인 저스틴 게이틀린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8년간 출전정지를 당했다. 이로써 게이틀린이 5월에 수립한 100m 세계타이기록(9초 77)은 인정되지 않았다.

저조한 성적, 아쉬운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28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낸 한국 육상경기는 2007년 1월 6일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발표한 종목별 세계 랭킹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여기서 한국은 마라톤 및 남자 100m를 포함하여 트랙 전 종목에서 50위권에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남자 창던지기의 박재명이 19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고, 한국기록 보유자인 세단뛰기의 김덕현과 남자 20km 경보의 김현섭이 각각 26위에 올랐다. 그 밖에 50위 안에 든 선수는 10종경기의 김진우 27위, 여자 멀리뛰기의 정순옥 39위, 여자 경보의 김미정 47위 등이다.

2007년 첫 한국신기록은 남자 해머던지기의 이윤철이 작성했다. 4월 28일 제3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69m 52(중전기록 69m 07)로 자신의 통산 7번째 한국신기록을 세운 것.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제11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이윤철은 다시 자신의 기록을 깼다. 이윤철이 70m 84(중전기록 69m 52), 강나루가 58m 33(중전기록 57m 96)로 남녀 해머던지기에서 동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3월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78회 동아마라톤에서는 서른일곱 살의 이봉주가 막판 대역전 레이스를 펼치며 우승해 감동을 선사했다. 4월 28일~5월 2일까지 경기도 고양에서 치러진 제3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아시아육상경기대회 대표 선발 겸)가 관중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국내 최대 육상경기 축



2007년 제6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역주하는 임희남(오른쪽)과 전덕형.

제로 변모했다. 이 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박철성과 김현섭이 한국최고기록을 세웠다. 박철성은 1시간 20분 20초, 김현섭은 1시간 20분 54초로 2004년 신일용이 세운 1시간 21분 29초를 크게 앞당긴 것. 그러자 한 달 뒤 신일용의 반격이 있었다. 5월 22일 열린 제11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이 5개나 나왔는데 그중 4개가 경보에서 나온 것. 신일용이 남자 1만m 경보에서 39분 21초 51(중전기록 39분 41초 94)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한 데 이어 박철성과 김현섭 등 3위까지가 한국최고기록이었다.

6월 1일 제6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또 한 번 탄식이 흘렀다. 임희남이 10초 36으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해 한국기록에 0.02초 모자란 것. 그마저도 당시 바람이 초속 2.1m로 불어 비공인 기록이 되고 말았다. 대신

여자 해머던지기의 강나루가 58m 84(종전기록 58m 33)로 열흘 만에 다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임희남의 탄식은 7월 15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일본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에서도 이어졌다. 100m를 10초 29로 주파하며 4위를 한 것. 임희남이 드디어 1979년 서말구가 세운 한국기록 10초 34를 깼으나 이날 뒷바람이 초속 2.1m를 기록돼 공인을 받지 못했다.

6월 24일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린 경보챌린지대회 남자 20km에서 박철성이 1시간 22분 31초로 8위를 하며 국제육상경기연맹 주최 경보대회에서 두 번째로 10위권에 진입했다(2005년 스페인 라코루냐 경보챌린지에서 김현섭 8위).

7월 14일 태국에서 열린 2007 유니버시아드대회 세단뛰기에서 김덕현이 17m 0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이 종목에서 첫 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7월 28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 팀은 은메달만 5개를 땀다.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김도균이 5m 20, 남자 20km 경보의 신일용, 여자 해머던지기의 강나루, 여자 창던지기의 김경애, 여자포환던지기의 이미영 등이다. 여자 100m 허들의 이연경은 13초 50, 여자 멀리뛰기의 정순옥은 6m 60으로 나란히 동메달을 땀다.

8월 제11회 오사카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이 한 개도 나오지 않을 만큼 기록 흉작인 가운데 한국은 남자 세단뛰기에서 김덕현이 8년 만에 결선에 올라 9위를 차지했고, 남자 경보에서 박철성과 김현섭, 마라톤의 박주영이 20위 안에 든 것이 큰 수확이었다. 특히 박주영, 김영춘, 이명승으로 구성된 남자 마라톤 팀은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마라톤 단체전에서 일본에 이어 2위로 첫 은메달을 땀다. 남자 10종경기의 김건우는 최종 21위를 했으나 1500m에서 4분 16초 16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회에서 미국의 타이슨 게이는 남자 100m와 200m에서 1위를 차지해 ‘스프린트 더블(단거리 2종목 우승)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그 전까지 두 종목에서 모두 우승한 스프린터는 1999년 모리스

그린, 2005년 저스틴 게이틀린 두 명뿐이었다.

10월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육상경기에서 단 한 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대회 마지막 날 남자 원반던지기에서 최종범이 58m 68(종전기록 57m 48)을 던진 것. 남자 100m에서는 임희남이 역주했으나 10초 37. 1979년 서말구가 세운 기록에 100분의 3초 모자랐다.

2007년 세계무대 최고의 화제는 자메이카의 아사파 파월이 남자 100m 세계 기록을 새로 쓴 것이다. 파월은 7월 10일 이탈리아 리에티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그랑프리에서 9초 74로 들어와 2005년 6월 15일 자신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세운 세계기록(9초 77)을 0.03초 앞당겼다. 이보다 앞선 6월 3일 미국에서 열린 2007 리복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에서 미국의 타이슨 게이가 9초 76을 찍었으나 뒷바람이 초속 2.2m로 불어 공인받지 못했다.

10월 30일 베를린 마라톤대회에서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가 2시간 4분 26초(종전기록 2시간 4분 55초)로 세계최고기록을 작성했다. 게브르셀라시에는 6월 28일 2007 세계육상경기투어 골든스파이크 그랑프리 1시간 달리기에서 2만 1285m(종전기록 2만1101m)를 달려 16년 만에 세계기록을 다시 썼다.

4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성공

2004년 10월 20일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제3차 이사회에서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추진을 의결했다. 그리고 2년 반의 준비 끝에 2007년 3월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는 대구를 2011년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결정했다는 낭보를 전했다. 2003년 8월 대구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내한한 자크 로게 IOC 위원장으로부터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권고를 받은 지 4년 만의 일이었다. 무엇보다 호주의 브리즈번과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힘겹게 누르고 이룩한 쾌거였다.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모나코에 본부를 둔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주도하는 대회로 하계올림픽대회, 월드컵축구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다. 지금까지 이들 3개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등 6개국뿐이다. 2011년 대구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은 지구촌 3대 빅 이벤트를 모두 치러낸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 대회는 올림픽대회를 제외하곤 육상경기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구촌 스포츠 축제로 꼽힌다. 아울러 '1번 기초 종목'이라는 육상경기의 상징성과 방

송 중계권료, 마케팅 수입, 유럽 지역의 높은 관심 등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는 세계적인 대회다. 이 대회는 198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4년 주기로 열리다가 1991년 일본 도쿄 대회 이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다.

대회 기간은 9일이며 종목은 남자 경기 24개, 여자 23개다.⁰⁰¹ 1회 대회에는 157개국, 2회 이탈리아 로마 대회에서는 165개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원국이 참가해 명실공히 단일 종목 최대 규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후 세계육상경기선수권 대회는 1AAF에 가입한 세계 213개국 3500여 명의 선수단과 각국 취재진 3000여 명이 참가하고 지구촌 60억 명이 경기를 시청하는 매머드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작전

이 빅 이벤트의 유치 과정은 어땠을까.⁰⁰² 정부가 2005년 1월 21일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를 승인한 이후 그해 6월 1일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유치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 경기 당시 사용한 경기장과 선수촌, 대회 운영 경험, 스포츠를 사랑하는 300만 대구 시민을 유치경쟁 전략으로 내세웠다.

유치 확정 절차는 이랬다. 2006년 7월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듬해인 2007년 2월 유치 신청도시 현지 실사를 거쳤다. 그리고 그해 3월 27일 케냐 몸바사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개최도시로 결정되었다.

2011년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대구는 호주의 관광도시 브

⁰⁰¹ 두산백과사전 참조.

⁰⁰² 강광배,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한 스포츠 외교, 연세대 사회체육과 박사 논문, 2007년, p86~87 참조.



2007년 3월 27일 케냐 몸바사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에서 대구가 2011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되자 신필열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왼쪽)과 라민 디악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가운데), 김범일 대구시장(오른쪽)이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

리즈번과 경합을 벌였다. 애초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그리고 미국도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 유치 경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구는 6만6000명을 수용하는 월드컵스타디움을 경기시설로 완비하고 있고, 6000명을 수용할 선수촌을 건설키로 하는 등 인프라에서 단연 경쟁 도시를 압도했다.

다만 한국 육상경기의 수준과 관중 동원 능력이 다소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육상경기란 브랜드를 확대, 재생산해야 하는 국제육상경기연맹 으로서는 새 시장을 개척한다는 면에서 아시아가 유럽보다 잠재력 면에서 훨씬 낫다고 보는 경향도 있었다. 인구 밀집 벨트인 한국, 중국, 일본 시장을 공략해야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는 2007년 국제육상경기연맹 실사단 방문 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미 공식

후보로 선정되기 이전에 투표권을 가진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위원 28명에 대한 개별 접촉을 끝냈다. 경쟁도시 브리즈번은 호주 제3의 도시이며 퀸즐랜드 주의 주도로, 황금빛 해안으로 유명한 골드코스트가 인접한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영연방인 호주의 육상경기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게 강점이었다.

반면 주경기장으로 쓸 퀸엘리자베스2세스타디움이 1982년 리모델링을 한 노후시설이라는 게 약점으로 지적됐다.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각 후보 도시의 각축전 속에 2007년 3월 27일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에서 대구는 브리즈번과 막판 강력한 다크호스로 등장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제치고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대구는 이와 관련해 최종 유치 프레젠테이션에서 각국 선수단과 임원에게 대회 시작 3주 전부터 종료 후 3일까지 숙박 비용을 제공하고 훈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각국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하루 100달러의 실비에 숙식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150만 달러를 국제육상경기연맹 육상경기학교 프로그램에 기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구는 이런 '깜짝 카드' 제의로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들의 표심을 사로잡아 결국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⁰⁰³

광주 그랑프리대회 첫 개최

2008년 2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뉴사우스웨일스오픈육상경기대회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강나루가 60m 58(중전기록 59m 44)을 던져 한국신기록을 세

⁰⁰³ 한겨레신문, 2007년 3월 28일자.

우며 3위를 했다. 4월 26일에는 2008 태국오픈육상경기대회 남자 110m 허들에서 이정준이 13초 63(종전기록 13초 67)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올림픽 B 기준기록인 13초 72를 넘어섰다. 이정준은 5월 18일 일본 사이타마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도 13초 56(종전기록 13초 63)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했다.

4월 23일 제12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여자 1만m 경보에서 김미정이 45분 06초 26(종전기록 45분 18초 86)으로 개인 통산 19번째 한국기록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나흘 뒤 열린 제37회 춘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에서 원셋별이 45분 00초 23으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하면서 깨졌다.

5월 6일 제37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유일한 한국신기록은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최윤희가 세운 4m 11(종전기록 4m 10)뿐이었다. 6월 4일 제6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이연경이 53m 22(종전기록 51m 64)를 던져 24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해머던지기의 강나루는 61m 50를 던져 2월 자신이 세운 60m 58의 한국기록을 4개월 만에 다시 썼다.

8월 베이징 올림픽대회에서 한국은 13개의 금메달을 땀지만 육상경기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남자 110m 허들에서 이정준이 13초 55(종전기록 13초 56)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트랙 종목에서 유일하게 예선 1회전을 통과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9월 23일 일본 가와사키 그랑프리대회 남자 110m 허들에서 이정준이 한국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기록은 13초 71. 이정준은 베이징 올림픽대회에서도 1988년 이후 20년 만에 올림픽 트랙 종목 8강 진출에 성공한 주인공. 이정준은 곧바로 9월 25일 개막된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13초 53(종전기록 13초 55)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2008년에만 4번째 한국기록을 경신하며 2위를 했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최윤희는 4m 15(종전기록 4m 11)를 뛰어넘으며 생애 통산 16번째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8위를 했다. 박재명은 창던지기



◀ 2008년 광주 그랑프리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4m 10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임은지.
▶ 2008년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 110m 허들에서 13초 53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이정준.

서 81m 42로 3위를 했다.

10월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7개의 한국최고기록이 작성되었는데 그중 경보에서만 4개가 나왔다. 여자 1만m 경보에서 원셋별이 44분 57초 89(종전기록 45분 00초 23), 여자 20km 경보에서 김미정이 1시간 29분 38초(종전기록 1시간 31분 39초)으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웠다. 남자 20km 경보에서 김현섭이 1시간 19분 41초, 박철성이 1시간 20분 17초로 종전기록 1시간 20분 20초를 나란히 넘어섰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최윤희는 4m 16(종전기록 4m 15), 남자 포환던지기의 황인성은 18m 66(종전기록 18m 51)으로 모두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김덕현은 남자 멀리뛰기에서 8m 13을 뛰어 1987년 김원진이 세운 한국기록(8m 3)을 21년 만에 깼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최윤희는 4m 16(종전기록 4m 15)으로 또다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 열리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08년 10월 22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종목별 상위 8위까지의 톱랭커들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그랑프리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임은지였다. 그는 장대를 잡은 지 9개월 만에 4m 10을 넘어 처음으로 한국기록 보유자인 최윤희를 꺾고 우승을 하며 이 대회 MVP로 뽑혔다.

2008년 세계무대에서는 단거리 종목에서 우사인 볼트의 독주와 함께 육상경기 강국 미국을 제치고 자메이카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6월 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리복 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에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9초 72로 역시 자메이카의 아사파 파월이 세운 세계기록(9초 74)을 갈아치우며 우승해 새로운 단거리의 황제로 떠올랐다. 6월 30일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타이슨 가이가 9초 68을 찍었으나 바람이 초속 4.1m여서 이 기록은 공인을 받지 못했다. 8월 베이징 올림픽대회에서 우사인 볼트가 100m 9초 69(종전기록 9초 72), 200m 19초 30(종전기록 19초 32), 4×100m 릴레이에서 37초 10(종전기록 37초 40)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3관왕에 올랐다. 여자 100m에서도 자메이카가 1, 2위를 차지했다.

9월 28일 제33회 베를린마라톤에서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는 2시간 3분 59초(종전기록 2시간 4분 26)로 자신이 세운 세계최고기록을 27초 앞당기며 4분의 벽을 처음으로 깼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대회 남자 100m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저스틴 게이틀린은 금지약물 복용이 발각돼 4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9년 2월 13일 오동진이 대한육상경기연맹 제22대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하기 전 오 회장은 8년간의 미국 생활에서 삼성전자의 북미 매출을 320퍼센트나 신장시켰다. 그래서 오 회장 취임 후 육상경기인들은 국제적인 감각과 추진력이 뛰어난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오 회장은 취임 이후 세계화의 일환으로 지도 방법의 ‘글로벌 스탠더드’ 작업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2011년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하는 집행부를 선포하고 한국 육상경기의 세계화에 최고 가치를 뒀다. 경기력 향상에도 총력을 기울여 ‘육상 발전 4개년 계획’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외국인 코치 활용 등 지도 체제의 획기적 개편을 추진해 나갔다.

아울러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지도자 육성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인 지도자들의 육상경기 기술 매뉴얼을 제작했다. 장기적으로 젊고 유능한 지도자들을 등급별로 구분해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어 한국 육상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겠다고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09년 10월 12일 법인화를 마치고 이어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과 모든 사업 추진 과정의 공개, 현안의 공유화 등을 꾀해 육상경기 행정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오동진 대한육상경기연맹 제22대 회장이 2009년 3월 13일 서울국제마라톤 선수촌 개회식 환영만찬에 앞서 대회를 하고 있다.

2009년은 임경희가 일본에서 열린 제31회 이누야마 하프마라톤(21.0975km)에서 1시간 11분 14초(종전기록 1시간 11분 15초)로 한국최고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3월 26일 대만 국제대회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임은지가 4m 24(종전기록 4m 16)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다시 최윤희와의 라이벌 경쟁이 시작되었다. 임은지는 4월 22일 제13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도 4m 25에 이어 4m 35까지 뛰어넘어 하루에 두 차례나 한국기록을 다시 썼다. 부산시와 부산육상경기연맹은 부산 출신인 임은지를 겨냥해 7월 제1회 장대높이뛰기대회를 개최했다. 장대높이뛰기가 단일 종목 대회로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어서 관심을 모았다.

4월 12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는 부상에서 회복된 지영준이 2시간 8분 30초의 개인 최고기록으로 우승했다. 4월 23일 경북 영주에서 열린



여자 100m 허들의 이연경(왼쪽)의 경기 모습.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남고부 100m, 평촌정보산업고의 김국영이 10초 47로 1위를 하며 단거리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 기록은 2007년 7월 심정보가 세운 고등부 기록(10초 48)을 100분의 1초 단축한 것. 김국영의 등장으로 남자 100m는 임희남, 여호수아, 전덕형과 함께 4파전이 되었다. 이제 30년 된 한국기록(1979년 9월 9일 서말구 10초 34)을 누가 깨느냐만 남았다.

2009년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2009년 6월 대구에서 열린 제6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멀리뛰기에서 정순옥이 6m 76(종전기록 6m 68)으로 2년 9개월 만에 한국신기록을 세



여자 장대높이뛰기 임은지는 최윤희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우며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A기준기록(6m 72)을 돌파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네 차례나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며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던 남자 세단뛰기의 간판 김덕현이 잠시 주춤하다 재기에 성공했다. 6월 5일 제63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김덕현은 17m 10(종전기록 17m 07)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세계선수권대회 A기준기록을 통과했다. 김덕현은 또 7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유니버시아드대회 멀리뛰기에서 8m 20(종전기록 8m 13)으로 금메달을 따 한국이 종합 3위를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경보에서도 한국최고기록이 나왔다. 7월 1일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여자 1만m 경보에서 전영은이 44분 47초 94(종전기록 44분 57초 89)로 생애 첫 한국최고기록을 세웠다.

9월 대구에서 국제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초미의 관심사는 남자 100m. 그러나 자메이카의 볼트가 불참한 가운데 미국의 타이슨 게이가 9초 94로 우승을 했다. 이는 서울 올림픽대회에서 칼 루이스가 9초 92의 기록으로 우승한 이래 한국 트랙에서 21년 만에 나온 9초대 기록이었다.

10월 국내에서 열린 마지막 육상경기대회인 2009 한국그랑프리대회에서 남자 100m는 10초 55를 기록한 임희남이, 여자 100m는 11초 65를 기록한 김하나가 각각 우승을 했으나 기대했던 한국신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는 임은지가 우승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최윤희에게 우승을 내준 것을 설욕했으나 기록 경신에는 실패했다.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박철성이 1시간 24분 41초로 3위를 하며 한국 대표팀에 첫 메달을 안겼다. 또 김하나·김초롱·김지은·이선애로 구성된 여자 4×100m 릴레이 팀은 45초 46으로 동메달을 땀다.

2009년 내내 세계인의 시선은 우사인 볼트의 발에 머물렀다. 볼트는 8월 독



2009년 9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에 참가한 선수들이 총성과 함께 스타트하고 있다.

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9초 58(종전기록 9초 69), 남자 200m에서 19초 19(종전기록 19초 30)로 또다시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한국은 이 대회 9개 종목에 19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나 모두 예선 탈락하고 말았다.

단거리의 샛별 김하나 뜨다

한국 육상경기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2009년 여자 육상경기 단거리에 샛별 하나가 떠올랐다. 주인공은 2009년 10월 26일 대전에서 막을 내린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육상경기에서 4관왕을 차지한 김하나(안동시청)다. 10월 20일 여자 일반 100m에서 11초 59로 아깝게 한국기록(11초 49) 경신에는 실패했으나 우승을 차지한 그는, 이튿날 200m에서 23초 69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하며 23년 만에 한국기록을 갈아 치웠다. 종전기록은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박미선이 세운 23초 80. 김 하나는 이날 우승으로 대한육상경기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신개념 개인 신기록(PB) 포상제 신설 및 대규모 메달 포상금 상향 지급' 안의 조건을 처음으로 충족해 포상금을 타게 됐다.

김 하나는 이어 10월 22일 4×100m 릴레이에서도 정순옥·김태경·김초롱(이상 안동시청)과 함께 45초 33(종전기록 45초 59)으로 23년 만에 한국기록(45초 33)을 다시 쓴 뒤, 이튿날인 10월 23일 4×400m 릴레이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화려한 질주'의 마침표를 찍었다.

김 하나는 한국체육기자연맹 기자단 투표에서 2009년 전국체육대회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되는 영예도 누렸다. 여자 선수가 MVP로 뽑힌 것은 2004년 양궁의 박성현(26·전북도청)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더욱이 육상경기 트랙의 단거리 종목에서 MVP가 나온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80년 제61회 대회부터 MVP를 선정한 이후 육상경기에서 10차례 MVP가 배출됐지만 모두 마라톤 등 장거리 선수나 세단뛰기 등 필드 종목 선수였다.

김 하나의 다음 목표는 1994년 이영숙이 세운 100m 한국기록을 새로 쓰는 것이다. 자신의 기록(11초 59)과는 0.1초 차. 김 하나가 100m 한국기록마저 넘어선다면 남자 육상경기 100m, 200m, 4×100m 릴레이에서 모두 세계기록을 지니고 있는 우사인 볼트처럼 한국 여자 단거리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우게 된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포상금 제도



2009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 4관왕에 오른 김하나. 한국신기록 2개도 보태 전국체육대회 MVP로 선정되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5개 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인 포상금 제도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도였다.⁰⁰⁴

일부 장거리 및 허들, 필드 종목에서의 기록은 기술 및 기량 발전으로 새로운 기록이 곧잘 나타나고 있지만, 세계 수준과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 육상경기의 침체는 2009년 8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선수들 사이에 국제대회 성적보다 전국체육대회 등 국내 기록에 치중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이에 선수들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에 손을 댔다. 기존 기록을 경신하면 일괄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등급제로 나눠 선수들의 의욕을 드높였다.

이에 따라 A급은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A기준 통과 기록, B급은 B기준 통과 기록, C급은 최근 3개 아시아경기대회 3위권부터 6위권의 기록 수준으로 나누었다. A급은 2000만 원, B급은 1000만 원, C급은 500만 원. 지도자의 몫도 기존 선수 지급액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메달 포상금도 금메달 10억 원, 은메달 5억 원, 동메달 2억 원 등 최대 10배 이상으로 올랐다. 포상금 제도의 첫 수혜자인 김하나는 여자 100m에서 C기준(11초 59 이내)과 같은 11초 59로 포상금 500만 원을 획득했다.

는 기대를 높였다.

국민 마라토너의 은퇴식

2009년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삼성전자)가 20년간 달려온 마라토너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 고향(충남)을 위해 2009년 제90회 대전 전국체육대회를 은퇴 레이스로 선택한 그는 당당히 국내 1인자임을 증명하듯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2위와는 2분 이상 차이가 나 화려하게 은퇴 레이스를 장식했다. 통산 41번째이자 마지막 완주에 나선 이봉주. 그는 2009년 10월 21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원미옥~옛터를 돌아오는 마라톤 코스에서 2시간 15분 25초의 기록으로 2위 유영진(2시간 17분 42초·충북)을 따돌리며 금메달을 땀다.

특히 그가 2000년 도쿄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7분 20초는 2009년 현재 깨지지 않고 있는 한국기록이다. 마라토너들은 35세 이전에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년 마라토너 인생을 접은 이봉주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한 사례다. A클래스 가운데 그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는 전 세계기록(2시간 4분 55초) 보유자인 폴 터갓(케냐) 정도가 유일하다.

⁰⁰⁴ 뉴시스, 2009년 10월 21일자.

31년을 기다린 100m 한국신기록

지구를 네 바퀴나 뺀 이봉주

이봉주는 너무 많이 뛰었다. 1990~2009년까지 41번 완주(황영조는 5년 동안 8회)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정도이다. 마라토너가 한번 대회에 참가하려면 최소 매주 330km씩 12주 동안 달려 몸을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3500~3800km를 달려야 하는 것이다. 이봉주는 43번(2번 기권) 대회에 참가했으므로 훈련거리만 쳐도 16만3400km(3800km×43)에 이른다. 여기에 실제 대회에서 달린 거리(42,195×43+하프마라톤 및 역전대회) 1956,58km를 더하면 16만 5356,58km나 된다. 지구를 약 4바퀴(지구 한 바퀴 약 4만km) 돈 거리다.

너무 많이 뛰거나 어린 나이에 너무 먼 거리를 달리면 무릎과 발목이 약해진다. 당연히 스피드가 나지 않는다. 50만km를 달린 자동차가 5만km를 달린 자동차에 뒤지는 것은 당연하다. 케냐나 유럽의 유명 선수들이 기껏해야 15회 정도 완주하고 은퇴하는 것도 바로 스피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맨발의 영웅' 에티오피아의 비길라 아베베도 15번 대회에 참가해 13번 완주한 게 전부다. 그는 1968년 고지에서 열린 멕시코시티 올림픽대회에 참가했다 도중 포기한 것을 포함해 2번 기권했다. 하지만 13번 완주한 대회 중 단 한 번을 빼놓고는 12번 모조리 우승했다.

이봉주가 기권한 것은 2001 에드먼턴 세계선수권대회와 2006년 일본 비와코 마라톤 두 번이다. 에드먼턴에선 28km 지점에서 양다리 허벅지 통증이 워낙 심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비와코마라톤에서도 몸이 워낙 좋지 않았다(황영조는 8번 완주해 3번 우승, 2번 준우승).

이봉주가 2위를 차지한 6번 중 4번이 15번째 참가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이후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봉주는 바로 그 대회에서 남아공의 조시아 투과니에게 3초 뒤진 2시간 12분 39초의 기록으로 2위에 그쳤다. 또 1996년 이후 5번 우승(후쿠오카,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보스턴, 부산 아시안게임, 서울국제마라톤)한 기록이 그의 최고기록(2시간 7분 20초)에 못 미친 것도 스피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신 이봉주는 지구력의 화신이다. 끈질기게 따라 붙는 데는 누구도 당해 낼 수 없다.

2010년 6월 7일 제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준결승이 열린 대구스타디움.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온 김국영 선수가 가장 먼저 피니시라인을 통과한 순간, 경기장 주변이 술렁거렸다. 10초 23.

1979년 멕시코시티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서말구 선수가 세운 10초 34의 종전기록을 31년 만에 0.11초 단축한 것이다. 예선에서 이미 10초 31로 한국 기록을 0.03초 단축한 김국영은 준결선에서 자신의 기록을 다시 0.08초 앞당기며 하루 동안 한국기록을 2번이나 새로 썼다. 김국영은 두 달 전인 2010년 4월, 비록 기준치 이상의 뒷바람 때문에 공인을 받지 못했지만 10초 17까지 기록을 단축하며 100m에서 한국신기록 작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영광의 주인공이 된 그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이 내건 1억 원의 포상금까지 받았다. 이 대회에서는 김국영 선수 외에도 임희남과 여호수아가 각각 10초 32와 10초 33으로 모두 종전 한국기록을 넘어서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대표팀 스프린터 3총사가 모두가 임무 수행에 성공한 셈이다. 이처럼 철용성 같던 한국기록은 깨졌지만 이제 세계 수준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놓여 있다.



2010년 5월 19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년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에 참가한 자마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1위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하고 있다. 맨 왼쪽에 한국기록 보유자인 김국영, 그 옆이 이 대회 100m에서 7위를 한 여호수이다.

우사인 볼트의 세계기록 9초 58은 물론, 아시아기록과 일본기록에도 한참 못미치지 때문이다. 31년간 한국기록 보유자였던 서말구 교수(해군사관학교)도 후배들을 찾아와 축하와 격려를 잊지 않았다. “더 열심히 해서 기록을 단축하자.”며 말이다.

한국의 대표 스프린터로 우뚝 선 김국영

롤러스케이트를 잘 타던 소년, 김국영이 31년 묵은 한국 육상경기 남자 100m 기록을 깨며 한국 육상경기계의 별이 됐다. 그는 키는 작았지만 발놀림이 빨라 덩치 큰 동료, 선배들을 모조리 제치며 성큼성큼 성장했다.

김국영은 준비된 기대주였다. 그는 중학교 시절 고교 선배들의 기록을 모조리 무너뜨리더니 고교 3학년 때 대학과 실업 선배들의 기록을 넘어섰다. 2009년 4월 23일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춘계전국중고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0초 47을 찍으며 선배 임희남, 여호수아 등을 누르고 현역 최고기록 보유자로 올라선 것이다. 2010년 4월 뒷바람이 규정을 초과해 공인되지 않았지만 10초 17이란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가 스파이크와 인연을 맺은 것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초등학교 3학년 운동회 때. 작은 체구의 꼬마가 친구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달리자 학교에서는 그를 의왕시 육상경기대회에 내보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채 나간 대회였지만 김국영은 거기서 상을 휩쓸었다.

이후 그는 안양으로 이사해 호원초등학교 육상경기부에서 본격적인 스프린터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육상경기부가 없는 대안 중학교에 진학한 뒤 럭비부에서 김국영의 재능을 알아보고 입단을 권했다. 하지만 김국영은 끝내 자신의



31년 만에 100m 한국기록을 깬 것이 믿어지지 않는 김국영.

신세대 스프린터의 조련사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100m에서 일본 선수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강태석(오른쪽).

고교 최강, 김국영은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대학과 실업 육상경기부의 제의를 뿌리치고 안양시청 강태석 감독 밑에서 한국신기록의 꿈을 키웠다. 강 감독은 1998년 베트남에서 비공인 한국신기록(10초 23)을 세운 스프린터 출신이다.

김국영은 평촌정보산업고 시절부터 강 감독의 조련을 받아 안양시청을 거쳐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거듭났다. 다른 실업팀과 달리 강 감독은 사제지간인 장재근

대한육상경기연맹 트랙 기술위원장의 요청이 있자 김국영을 이종윤 대표팀 코치에게 보내 태릉선수촌에서 지도를 받도록 했다.

육상경기는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종목이어서 대표팀 코치와 소속팀 지도자 간에 마찰이 적지 않았다. 이 와중에 지도자마다 스타일이 달라 선수들도 평정심을 잃기 쉽다. 하지만 김국영은 소속팀과 마찰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다. 강태석 감독이 고교 최강 김국영을 길러냈다면 ‘한국 최강’으로 서게 된 배경에는 이종윤 코치가 있었다.

2009년 7월 1일 대표팀에 합류한 이종윤 코치는 수많은 지도자가 한국신기록 도전에 실패했지만 최단기간에 한국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한국체육대학 단거리 선수로 활약하며 태극 마크를 단 그는 대학 3학년 때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고 10여 년간 중장비사업을 했다.

하지만 장재근 대한육상경기연맹 트랙기술위원장을 비롯한 육상경기계 지도자들은 추진력이 강한 이 코치야말로 “잠든 단거리를 깨울 적임자”라며 전격 기용했다고 한다. 이종윤 코치는 “김국영 선수가 근력이 약한 반면 순발력이 탁월하다.”면서 “잠재력이 큰 선수다. 이제 시작”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2010년 7월 남자 50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백승호(왼쪽).
2010년 7월 여자 8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허연정(오른쪽).

뜻을 내세워 육상경기부가 있는 관양 중학교로 전학했다. 아버지 김상문 씨는 “공부를 해 주기를 원했지만 국영이는 육상경기를 하겠다고 고집했다.”면서 “지도자와 상의해 육상경기부가 있는 학교로 옮겨준 걸 빼고는 부모가 해 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국영은 관양중 3학년 때 10초 85를 찍으며 고교생을 제치는 단거리 최강자로 군림했다. 그러다 평촌정보산업고 3학년 때인 시즌 최고기록으로 육상경기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010년 한국신기록 잇따라 작성

김국영이 한국 육상경기 남자 100m의 새 역사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육상경기 트랙종목이 잇달아 신기록을 내며 신바람 질주를 이어갔다. 남자 장거리 유망주 백승호와 여자 중거리 베테랑 허연정이 2010년 7월 17일 일본 홋카이도 아바시리 시에서 열린 호크렌디스틴스첼린지대회 6차 레이스 남자 5000m와 여자 800m에서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한국 육상경기계를 이끌 스프린터로 주목 받고 있는 김국영, 여호수아, 박봉고(왼쪽부터).



◀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딴 이미영.
▶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은메달을 딴 김유석.
사진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대회 때의 모습.

백승호는 13분 42초 98을 기록해 남자 5000m 한국기록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2006년 지영준이 세운 종전기록(13분 49초 99)을 7초나 줄였다. 목포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 때 뒤늦게 육상경기를 시작한 백승호는 건국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빠른 속도로 기량이 늘어 마라톤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2008년 5000m에 입문한 뒤 14분 20초대를 뛰다 2년 뒤인 2010년 6월 전국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4분 5초 91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다. 황규훈 건국대 감독은 “백승호는 타고난 스피드가 빨라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허연정은 이날 대회에서 2분 4초 41을 찍으며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을 0.37초 앞당겼다. 앞서 7월 14일 이 대회 5차 레이스에서 2분 4초 78로 피니시



여자 100m 허들 레이스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한국기록을 끌어올리고 있는 정혜림(왼쪽)과 이연경.



여자 5000m 한국기록 보유자인 여고생 염고은(가운데).

라인을 통과해, 1987년 최세범이 세운 종전 한국기록(2분 5초 11)을 23년 만에 새로 쓴 그는 사흘 만에 또 기록을 단축했다. 한때 은퇴를 고민하던 허연정이 재 도전한 결과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처럼 2010년 이후 한국 육상경기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여자 100m 허들에서는 이연경(안양시청)과 정혜림(구미시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한국 기록을 13초 00까지 끌어올렸다. 여자 5000m에서도 여고생 기대주 염고은(김포제일고)이 5년 만에 한국기록(15분 38초 60)을 작성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최대 성과

한국 육상경기는 2010년 11월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모처럼 힘을 내 한국 선수단의 종합 2위 수성에 힘을 보탤다. 한국은 애초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한국 육상경기는 11월 21~26일 엿새간 중국 광저우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린 트랙과 필드, 도로경기에서 금메달을 모두 3개씩 따내며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최대 성과를 수립했다. 김덕현과 정순옥이 예상을 깨고 남녀 멀리뛰기를 석권했고, 우승 후보였던 이연경은 예상대로 여자 1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연경은 한국 여자 단거리 트랙 종목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임춘애가 800m와 1500m, 3000m를 석권하는 등 중장거리 트랙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딴 적이 있지만 단거리에서는 금메달을 딴 적이 없었다. 1978년 방콕 대회에서 이은자가 여자 200m에서 은메달을 딴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었다.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은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이연경의 노련한 기술이 빛난 레이스였다. 뒷바람도, 맞바람도 없는 고요한 경기장에서 7번 레인에

대구 세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열리다

들어선 이연경은 총성 소리가 나자 0.133초 만에 달려 나갔다. 카자흐스탄의 이보닌스카야(0.129초)에 이어 2위. 스피드가 달려 이연경은 중반까지 중위권에 서 달렸고, 마지막 허들이 가까워 올 때까지도 선두로 치고 나서지 못했다. 후반 들어서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은 이연경은 침착하게 질주를 계속했고, 앞선 선수를 하나 둘씩 제치고는 이보닌스카야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끊었다. 두 선수가 워낙 비슷하게 들어왔기에 경기장에서는 5분 가까이 기록을 확인하느라 침묵이 흘렀다. 승리를 예감한 듯 들뜬 표정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이연경은 마침내 전광판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확인하자 환호하며 태극기를 몸에 감고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다.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김유석, 창던지기의 박재명, 10종경기의 김건우는 각각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남자 110m 허들의 박태경과 남자 20km 경보의 김현섭, 여자 포환던지기의 이미영도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 동안 대구메인스타디움(6만 6000여 석)에서 열렸다. 총 47개 종목(남자 24개, 여자 23개)에 걸쳐 202개국 1945명의 선수(선수단 6914명)가 참가했으며, 전 세계 연인원 70억 명이 TV로 경기를 지켜본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사상 처음으로 선수촌이 세워졌으며, 관중은 44만 6000여 명이 들어와 2007년 오사카대회 25만 4000명, 2009년 베를린대회 39만 7000명을 뛰어 넘었다. 67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 7000여 명의 시민 서포터스도 눈길을 끌었다. 관중의 뜨거운 열기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한국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세간의 평을 무색케했다.

대구스타디움이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장과 비교할 때 관중석 규모가 컸다는 점, 다른 대회에서도 오전 예선전에는 빈자리가 많았다는 점 등도 고려할 대목이다. 특히 관중이 박수를 치며 선수들과 리듬을 함께 하고 열광적으로 호응한 모습은 그동안 한국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2011년 11월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대구를 '세계육상도시'로 선정했다. 대구가 세계육상도시에 선정된 것은 독일 슈투트가



▲ 2011년 8월 2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막식 모습.
▼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막 축하행사.



▲ 대구스타디움에서 대한육상 경기연맹 오동진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임원진 경기진행요원.
▼ 대구스타디움을 찾은 김황식 국무총리의 모습(아래 오른쪽).



▲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내빈들.
▼ 2011년 8월 27일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개막을 선언하는 이명박 대통령.



☞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관중과 취재진.

르트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다.

이 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은 남자 4×100m 릴레이(자메이카)에서 1개가 나와, 세계신기록이 하나도 없었던 오사카대회보다는 나왔지만, 3개나 나온 베를린 대회에는 못 미치는 성적이었다. 게다가 개최국인 한국은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해 스웨덴,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개최국 노메달 국가’로 남았다.

미국은 금메달 12, 은메달 8, 동메달 5개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러시아(금 9, 은 4, 동 6)와 케냐(금 7, 은 6, 동 4) 자메이카(금 4, 은 4, 동 1) 독일(금 3, 은 3, 동 1) 영국(금 2, 은 4, 동 1) 중국(금 1, 은 2, 동 1) 호주(금 1, 은 1, 동 1) 에티오피아(금 1, 은 0, 동 4) 우크라이나(금 1, 은 0, 동 1)가 이었다. 남자 해머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일본은 그 금메달 하나로 11위에 올랐다. 일본은 2007년 자국에서 열린 오사카대회 여자마라톤에서 동메달 1개를 건져 36위에 그친 바 있다. 대구대회에선 동메달 하나를 따낸 이란, 짐바브웨, 바하마가 공동 33위를 차지했다.



☞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이틀째인 8월 28일 여자 장대높이뛰기 예선에서 최윤희가 4m 40을 넘어 2011년 6월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과 타이틀을 이룬 뒤 기뻐하고 있다.

결선 진출 1, 톱10 종목 2, 한국신기록 3

한국은 1995년 스웨덴 예테보리 대회와 2001년 캐나다 에드먼턴 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노메달 개최국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대회를 앞두고 ‘10-1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개 종목에서 10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대회가 열리자 ‘10-10 프로젝트’는 설익은 꿈이었다. 남자 20km 경보에 출전한 김현섭 6위, 남자 50km에서 한국기록을 작성한 박철성이 7위, 남자 멀리뛰기 김덕현이 결선에 오른 게 전부였다. 김덕현은 시즌 최고기록으로 멀리뛰기 예선을 통과했지만 세단뛰기 예선에서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결선 무대를 밟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세계 수준과의 격차가 좁아 메달권 진입이 기대됐던 남자 마라톤에서는 출전



남자 20km 경보에서 1시간 21분 33초로 6위를 하며 애초 목표인 톱10 진입에 성공한 김현섭.

선수 5명 모두 20위 밖으로 밀렸다. 정진혁 23위, 이명승 28위, 황준현 35위, 황준석 40위, 김민 44위였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지영준의 금메달로 한껏 고무됐던 한국 마라톤은 그러나 이 대회에서 일본(10위, 18위), 중국(14위)은 물론 몽골(20위)에도 뒤처지는 수모를 겪었다. 정진혁은 레이스 초반 15km까지 아프리카의 강호 케냐, 에티오피아 선수들과 선두 그룹을 형성하며 달렸다. 하지만 이후 케냐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두 그룹이 스피트를 하자 정진혁은 이렇다 할 힘 한번 써 보지 못하고 뒤로 밀리고 말았다. 이 대회에서 케냐의 아벨 키루이가 2시간 7분 38초로 우승을 했다. 2년 전 베를린 대회에서 2시간 6분 54초로 금메달을 차지한 키루이는 출발부터 선두 그룹을 유지하다 30km 지점부터 선두로 치고 나와 10km 이상을 독주한 끝에 여유롭게 타이틀을 지켰다. 키루이의 개인 최고기록



2011년 9월 3일 대구 국제보상로에서 열린 남자 50km 경보에서 박철성이 3시간 47분 13초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7위에 올랐다.

은 2009년 작성한 2시간 5분 4초. 세계선수권 대회의 경우 순위 경쟁을 펼치는 탓에 뉴욕, 로테르담, 런던 등 일반대회보다 페이스가 전반적으로 느리지만 2시간 6, 7분대는 되어야 입상권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대구 대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 마라톤에서도 김성은 28위, 이숙정 34위, 정윤희 35위, 박준숙 43위, 최보라 44위로 한국 선수들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짬뽕 더위였음에도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마라톤 출발 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춰 가며 3명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단체전 메달을 노렸으나 결과는 남자 6위, 여자 7위였다. 게다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해 기대를 모았던 지영준은 부상으로 이 대회에 참가조차 못하면서 선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31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남자 100m 한국기록을 경신하며 우리 출전 선수 중



▲ 2011년 8월 28일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100m 예선 1라운드 6조에 출전한 정혜림 선수가 역주하는 모습. 정혜림은 11초 90의 기록으로 28년 만에 처음 본선에 진출했다.
▼ 남자 10종경기의 김건우는 합계 7860점으로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기록(7824점)을 36점이나 끌어올렸지만 17위에 머물렀다.



☞ 2011년 9월 1일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멀리뛰기에서 8m 2를 뛰어 결선 진출에 성공한 김덕현.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김국영은 자격예선(본선 1라운드로 진출하기 위한 경기) 첫 레이스에서 부정출발로 실격해 아쉬움을 남겼다. 8월 27일 오후 대구스타디움 100m 트랙 1번 레인에서 출발 총성을 기다린 그는 0.146초로 가장 빠른 스타트 반응시간을 보였지만 심판진의 부정출발 선언으로 경기를 뛰지 못했다. 이전까지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부정출발 선수에게 한 차례 기회를 더 줬다. 하지만 이번 대회부터 규정은 한 차례 부정출발이 바로 실격 처리로 바뀌어 김국영의 도전은 트랙 한 번 맘껏 밟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한국기록(10초 23) 보유자인 그는 가파른 상승세로 본선 진출이 유력했으나 한 번의 실수로 그간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여자 멀리뛰기의 정순옥은 발목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전을 강행해, 예선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이처럼 한국은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따냈지만 세계무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볼트의, 볼트에 의한, 볼트를 위한...



남자 4×100m 릴레이에서 자메이카팀이 37초 04의 세계신기록을 세운 뒤 상금을 받고 포즈를 취한 우사인 볼트.

“와!”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막일인 8월 27일.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남자 100m에 출전하기 위해 대구스타디움에 등장하자 관중의 함성과 박수가 터졌다. 볼트는 예상대로 압도적 기량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우승은 당

연한 거였고 세계의 관심은 2009년 베를린대회에서 세운 세계기록 9초 58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에 쏠렸다.

이튿날 오후 8시 45분 남자 100m 결선. 볼트가 스타팅블록에 들어섰다. 대구스타디움을 메운 4만 5000여 관중과 각국의 방송진 모두가 볼트의 세계신기록 작성을 기대하며 숨을 죽였다. 준비를 알리는 '셋set', 이내 총성이 울렸다. 그런데 곧 선수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카메라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 볼트에게 모아졌다. 총성이 울리기 전 볼트가 스타팅블록을 박차고 나간 것이었다.

실격. 관중석의 함성은 탄식으로 바뀌었다. 경기 뒤 두문불출하던 볼트가 다시 나타난 건 9월 3일. 그는 남자 200m 예선과 준결선을 여유롭게 통과하며 결선에서도 19초 40으로 대회 2연패를 거머쥐었다. 100m 실격에 대한 실망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회 폐막일이던 9월 4일 볼트는 대회 최종 경기로 펼쳐진 남자 4×100m 릴레이 결선에서 자메이카 마지막 주자(앵커)로 나섰다. 세 번째 주자이자 대회 100m 우승자인 요한 블레이크로부터 baton을 이어받은 볼트는 폭발적인 질주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37초 04위 대구대회 첫 세계신기록이었다. 3년 전 베이징 올림픽대회에서 자메이카가 수립한 세계기록을 0.6초 단축하며 우승했다. 100m 실격, 200m 우승 그리고 400m 계주 세계신기록. “전설이 되고 싶다.”는 볼트는 이렇게 한 편의 드라마를 썼다.

그나마 한국신기록 4개가 위안거리였다. 무엇보다 릴레이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남자 4×400m 릴레이팀은 13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남자 4×400m 릴레이에서 박봉고·임찬호·이준·성혁제가 조를 이뤄 3분 04초 05의 기록으로 종전 한국기록을 0.39초 앞당겼다.

남자 50km 경보에선 간판스타 박철성이 3시간 47분 13초로 자신의 기록을 3분가량 앞당기면서 가능성을 펼쳐 보였고, 남자 10종 경기 김건우는 합계 7860점으로 자신의 종전 한국기록(7824점)을 36점이나 끌어올렸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최윤희도 4m 40의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

이번 대회에서 같은 아시아계인 중국과 일본은 여자 원반던지기(리안핑)와 남자 해머던지기(무로후시 고지)가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 중국은 61점의 포인트를 따 참가 202개국 중 8위, 일본은 18점으로 18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5점으로 51위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무로후시가 해머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땀에도 대회 성적 부진을 힐책하는 여론이 일었다고 한다. 일본은 당초 5개 종목 결선 진출, 2개 종목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4개 종목 결선 진출에 1개 종목 우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림픽대회와 월드컵대회 등에서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은 유독 육상경기에서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뒀다. 바로 우리 육상계를 자극한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8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과와 과제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결과, 당초 목표인 10개 종목에서 결선 진출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결선 진출 1개, 톱10 종목 2개, 한국신기록 3개, 한국타이기록 1개가 나와 역대 최대 성적을 수립했다. 이 대회를 통해 한국 육상경기의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애초 한국의 목표였던 10개 종목 결선 진출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간 세계의 높은 벽을 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아시아권 정상에 올랐지만 세계 수준 진입은 무리였다. 10개 종목에서 10위 안에 들겠다는 '10-10' 목표 설정이 과욕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열린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트랙, 필드, 로드레이스 전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최대 성과를 수립했다. 또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종합 점수평가 14위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4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결과

연번	종목	성명	기록	목표	결과	2008년 베를린
1	20km 경보 (/순위)	김현섭	1:21:33/6	톱 10	6위	34위
2	50km 경보 (/순위)	박철성	3:47:13/7	톱 10	7위 (한국기록)	-
3		김동영	3:51:12/14		14위	-
4	멀리뛰기	김덕현		결선 진출	11위(최초 결선 진출)	15위
5	세단뛰기	김덕현	-	결선 진출	예선 탈락(부상)	24위
6	장대 높이뛰기	김유석	5m 20	결선 진출	예선 탈락	19위(5m 60)
7		최윤희	4m 30	결선 진출	4m40(한국타이기록)	-
8	창던지기	정상진	72m 03	결선 진출	예선 탈락	36위(79m 69)
9		김경애	54m 96	결선 진출	예선 탈락	-
10	10종경기	김건우	7,860/17	한국기록(7824)	한국기록(7860)	-
11	4×400m 릴레이	4명	3분04초05/15	한국 기록 (3분 04초 44)	한국기록(13년 만에.1993) 올림픽 출전권 확보(15위)	-
12	20km 경보	전영은	1:35:52	올림픽 출전권 확보	올림픽 출전권 확보	-
13	100m	정혜림	11.90	본선 진출	본선 진출(28년 만에 처음)	-

로 급부상해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잠재력과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현실적으로 10개 종목 10위권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4년의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 대회를 앞두고 경기력 향상 예산 약 130억 원이 지원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원 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년에 불과했고, 고질적인 전국체육대회 중시 풍조와 소속팀 이기주의에 의한 대표 소집 불응, 대표팀 코치와 소속팀 코치 간의 불화, 만연한 패배주의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거둔 주요 성과를 보면, 남자 종목에서만 세단뛰기 9위(2007년), 높이뛰기 6위(1999년), 높이뛰기 8위(1997년), 마라톤 4위(1993년)를 한 것이 전부로, 세계 수준과 격차가 큰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발목 부상으로 2011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신 여자 멀리뛰기의 정순옥. 사진은 2010년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 때 착지 모습.

둘째, 선수층이 얇고, 선수 관리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남녀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4종목 등 일부 기대 종목에서 국제경기에 대한 준비 부족이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에서 훈련해온 장대높이뛰기의 김유석 선수는 근접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남녀 창던지기는 아시아경기대회 후 코치 교체 과정에서 적응 시간이 부족했다. 남자 창던지기의 정상진은 7월까지 선발 경쟁에 참여하느라 정작 8월에 열리는 대구 대회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기대주 임은지는 도핑 연루로 인해 막판까지 최윤희와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차질을 빚은 점도 성적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10-10' 이 가능했던 선수가 부상 및 컨디션 난조로 기대한 성적을 거두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세단뛰기에 출전한 김덕현. 그는 멀리뛰기 결선에 진출하고도 이후 세단뛰기 예선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

지 못한 점도 아쉽다. 김덕현은 남자 멀리뛰기 결선 진출이 확정된 후 세단뛰기 경기 중 부상을 당해 결과적으로 2종목을 모두 놓쳤다. 여자 멀리뛰기의 정순옥 역시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고질적인 부상 재발로 심리적 문제까지 겪어야 했다. 이와 함께 지영준 등 마라톤 선수들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뒤 도핑 허위 고발 사건에 이은 부상 등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다 결국 대회에 참가조차 하지 못했고, 나머지 선수들 역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2009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반복되었던 문제로,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과 생리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선수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창던지기에서 결선 진출을 목표로 했으나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정상진.
▶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창던지기의 김경애. 결선 진출을 목표로 했으나 예선에서 탈락했다.

희망의 불씨, 경보와 릴레이 종목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2009년 베를린 대회에 비하면 진일보한 면이 분명히 있다. 이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종목에서 균형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중 하나가 경보다. 1997년 삼성이 대한육상경기연맹을 후원하면서 전략 종목으로 경보를 집중 지원해왔다. 중국, 폴란드, 호주 등에서 우수 지도자를 영입해 꾸준히 기록 향상을 꾀해왔고 삼성전자 육상단은 별도의 경보팀을 육성했다. 50km 경보 종

목에서는 러시아, 호주, 중국, 일본이 강세여서 단기간에 이들을 넘어서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우리 선수들의 기록 향상 추이로 볼 때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남자 20km 경보는 최근 지속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들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메달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 종목이다. 이를 위해 김현섭 선수와 대등한 레이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의 육성이 시급하다.

경보와 더불어 약진하고 있는 것이 릴레이 종목이다.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남자 4×400m 릴레이에서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특히 4×400m 릴레이팀은 박봉고를 비롯한 어린 선수들로 구성돼 장래가 기대되는 종목이며, 허들과 연계할 수 있어 충분히 세계의 벽에 도전해 볼 만한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필드 종목에서 김덕현 선수가 멀리뛰기에서 결선 진출에 성공하고도 세단뛰기 예선 중 부상을 당해 멀리뛰기 결선을 포기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덕현 선수는 앞으로 주 종목을 정해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덕현은 이후 주 종목을 세단뛰기에서 멀리뛰기로 바꾸었다.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는 최윤희가 4m 40의 한국타이기록을 세웠으나 참가선수 35명 중 18위에 그쳐 예선 탈락을 했다. 그러나 장대높이뛰기는 다른 종목에 비해 체력적인 요소보다 기술적인 요소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종목이다. 최윤희는 2012년 5월 8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4m 41을 넘어 자신이 세운 종전기록 4m 40을 1cm 끌어올리며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는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 B기준기록(4m 40)을 넘긴 것이고 A기준기록은 4m 50이다.

둘째,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정신력이 강화되었다. 정신력 강화는 세계 목표에 대한 자신감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총체적 매너리즘과 패배주의가 지적되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크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개최국임에도 총 47개 종목 중 34개 종목 60



◀ 남자 50km 경보에 출전한 김동영. 한국은 이 종목에서 박철성이 3시간 47분 13초로 한국최고기록을 세우며 7위를 했고, 김동영은 3시간 51분 12초로 14위를 했다.
▶ 여자 20km 경보에 출전한 전영은은 1시간 35분 52초를 기록하며 런던 올림픽대회 출전권을 확보했다.

명만 참가시키는 등 정책적으로 우수선수 차별화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가능성 있는 종목 선수만 키운다'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중점 종목 육성 방침이 육상경기인들에게 각인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지만 여자 마라톤이 사상 첫 단체전(상위 선수 3명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형식)을 치렀다. 8월의 무더위 속에 총 59명 참가선수 가운데 12명이 중도 포기한 어려운 레이스였지만 한국은 참가선수 5명이 전원 완주해 단체전 7위를 하며 정신적으로 무장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계선수권대회라는 큰 무대에 처음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상급 스타들과 기량을 겨루며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수확이다. 이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육상경기연맹 등이 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웹사이트 등을 통한 사기 진작 프로그램 운영과 국민 응원 캠페인 등이 큰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재평가될 사례이다.

셋째, 스포츠 외교 및 국제화가 확대되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이영선 이사가 한국 육상경기 사상 최초로 국제육상경기연맹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었다. 이 이사는 8명의 여성위원 중 한 명으로 뽑혔으며, 한국 육상경기 선수 출신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부에 들어간 최초 사례이다. 이와 함께 박정기 위원도 집행위원 6선에 성공했다.

넷째, 육상경기의 선진 기술 자료를 확보했다. 대구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해외 우수 지도자의 훈련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이를 자산화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해외 우수 지도자가 초청돼 왔다가 돌아갔을 때,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아무런 결과물도 남은 게 없었다. 이를 거울 삼아 2011년 대구 대회를 위해 6명의 해외 지도자를 영입하고, 이들의 훈련 과정을 DVD 등 동영상에 수록해 이후 우리 선수들의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했다. 특히 국제대회 중 경기 훈련 과정 촬영, 각종 데이터베이스 확보, 정상급 선수의 경기 운영 방법 촬영과 기록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선수와 지도자 육성에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섯째, 국내 지도자들이 세계 속의 한국 육상경기에 대한 현실과 국민적 기대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응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계 도전에 대한 절박함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고취시켰다. 또 지속적인 소통, 지도자 시스템 도입 등이 지도자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회가 열리는 9일 동안 현직 지도자 400명을 심판으로 투입함으로써, 이들이 한국 육상경기의 위상과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47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x100m 릴레이에 출전한 여호수아·조규원·김국영·임희남의 모습. 이들은 38초 94로 한국신기록을 썼으나, 풍속 초과로 이 기록은 공인 받지 못했다.

개 종목의 균형적 발전보다는 전략 종목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었다.

대구 대회 이후 정부와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과제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11년 9월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교수, 언론, 연구원 등 외부 전문평가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후 한국 육상경기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이 내용을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해 한국 육상경기의 문제점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47개 종목의 개인주의, 집단행동, 신체적 핸디캡, 정책적이고 사회적인 인프라 부족, 학교체육의 비정상화 등 총체적 난관 속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면 육상계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넘어져 봤기에

일어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고, 일어서는 방법도 터득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 육상경기의 터닝 포인트'이다. 지도자와 선수 모두 너무나도 현격한 세계 수준을 절감했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자극을 받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10개 종목에서 결선 진출 및 세계 톱10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그것은 개최국으로서 의지의 표명이었다. 지난 20년간 세계대회에서 1개 종목만이 톱10에 진입한 바 있는 한국이 4년이라는 단기간에 높은 세계의 벽을 뛰어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결과 톱10 2종목, 결선 진출 1종목, 한국신기록 3개, 한국타이기록 1개가 나온 것은 한국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한국 육상경기가 국제무대에서 결선 진출에 성공하고 메달권에 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의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스포츠의 기본 종목인 육상경기가 재도약 하려면 정부 지원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전문가들의 엄정한 평가 과정을 거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세계대회 이후 '지속 추진 사업'의 재정립과 '육상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연속성을 갖지 못한다면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한 모든 수고가 낭비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육상의 경기력 향상은 한국 스포츠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국 체육의 과제이다. 이는 당장 육상경기에서의 메달 획득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스포츠의 기본 종목인 육상경기의 발전 없이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많은 육상경기 선수들이 인기 종목으로 이탈한다 해도 그 역시 한국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미국이 세계 스포츠의 절대 강자인 이유는 바로 육상경기에서 강하기 때문이다. 십수 명이 출전해 메달 한 개를 따는 구기 종목에만 매달려서는

한국 스포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 되려면 다관왕이 가능한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 종목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8년 11월에 발표한 '한국 육상 발전 계획'은 2011년까지 세계 10위권 종목 10개 육성을 목표로 했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당초 비전인 '대한민국 육상 진흥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무형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었다. 특히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추진했던 사업인 '2011년 대비 경기력 향상' 과 그 추진 과제인 '2011년 드림팀 선발 및 집중 지원', '우수 해외 지도자 영입 및 국내 지도자 역량 강화', '국내 육상대회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라는 단기 과제는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기점으로 마무리되었다 해도, 중장기 전략인 육상경기 저변 확대와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제2단계 사업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육상경기 선수의 저변 확대, 학교 및 지역 육상클럽 활성화, 육상 실업팀 창단 유도, 2011년 대회 성공적 개최, 육상 붐 조성, 대구육상진흥센터 건립, 육상아카데미 설립·운영, 대한육상경기연맹 역량 제고 및 국제화 등 중장기 추진 과제는 향후 '5년간 중장기 발전 계획' 을 수립해 전개해야 한다. 단 본 계획은 엘리트 육상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육상경기라는 종목의 특성과 종사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생활체육, 청소년 건강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저변확대가 시급하다. 육상경기라는 기초 스포츠가 초·중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학교 체육수업이 각급 교과과정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추진 중인 '이러닝e-Learning'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국내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육상경기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웹사이트를 통한 선수와 지도자 교육은 물론 상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 온

라인 육상경기 교육 시스템 속에 외국인 코치들의 동영상 강의, 영어교육, 도핑 방지 정보 제공, 스포츠 장애에 대한 상담 창구 개설, 의료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고, 향후 SNS를 통한 훈련지원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 에듀넷과도 연계해 나갈 구상을 통해 더욱 전향적인 사업으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 육상진흥센터 건립에 맞춰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각 시스템을 준비해 나감으로써 우수한 지도자는 물론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 또한 각급학교에서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메달리스트들이 달리기를 잘해서 운동선수가 됐다는 사례가 가장 많다.

셋째, 선수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육상경기는 ▲ 육성 종목의 '선택과 집중' ▲재능 있는 꿈나무 발굴과 육성 ▲지도자 업그레이드를 통한 선수의 질적 향상 ▲육상경기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라는 기초基調는 그대로 가져가되, 새로운 개념의 육성 체제와 IT를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아시아에서는 정상에 다가섰지만 이제 세계 정상 도전을 위해 또 다른 차원의 투자와 정책이 필요하다. 시스템에 녹이고 현장 훈련에 접목시키는 매뉴얼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경험과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 각 위원회를 '경기력 향상 본부' 개념으로 통합 관리해서 과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선수 선발과 집합훈련 등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후 트랙, 필드, 마라톤, 경보, 스포츠과학, 의무, 경기, 시설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경기력 향상 본부' 개념으로 통합하고 독립성은 인정하되 상호 교류하게 하여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는 별도로, 대회 운영에만 주력했던 경기위원회와 시설위원회 역시 개념을 바꾸어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기능으로 재

대한육상경기연맹 22대 집행부가 걸어온 길

편해야 하며, 각종 육상경기대회도 전면 재편해야 한다. 또한 도핑에 대한 예방 교육과 전문성과 부상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지원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도자 연수에 주력하고 있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성공 사례가 있는 해외 지도자를 초빙해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한 행사가 아닌 기록으로 남겨 전달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을 실시한 후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한편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15~19세 차세대 유망선수 20명을 대상으로 기록과 부상 등 입체적 관리를 위한 가칭 '족적足跡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올림픽대회나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선수와 특출한 실적이 있는 지도자로 구성된 '테크니컬 스태프'를 구성해서 이들로부터 상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수들에게 국제경기 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해 아시아지역 초청대회 등 중소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선수들을 파견하고 우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해 장기 유학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부처, 대한육상경기연맹, 체육계, 미디어 분야 주요 정책 결정권자 15인 이내(대한육상경기연맹 주관)로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던 '육상발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기초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가치 있는 중장기적 투자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와 개최를 계기로 한국 육상경기 진행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달려온 제22대 대한육상경기연맹 집행부(오동진 회장)의 성과와 업적을 되돌아본다.

1.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및 개최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제13회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2개국 1945명의 선수(선수단 6914명)가 참가했다. 한국은 2007년 오사카 대회를 열었던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했으며, 세계 스포츠 3대 이벤트로 불리는 하계올림픽·월드컵 축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

2. 육상진흥센터와 아카데미 건립 추진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로 인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실내 육상경기장이다. 2007년 대회 유치에 성공한 뒤 육상경기 발전 인프라 구축을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 이 대회에는 202개국 691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위해 '대구육상진흥센터' 건립이 추진되었다.

육상진흥센터는 639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건물면적 2만1천486㎡ 규모로 지어지며, 200m 트랙 6레인과 관람석 5000석의 실내육상경기장, 육상아카데미 운영 공간 등이 설치된다. 국내 및 국제육상경기대회는 물론 유소년 후보 선수와 상비군 등 육상 인재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훈련과 지도자 등 육상경기 전문인력 양성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실내육상경기장은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공인 가변식 트랙을 시공해 스포츠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다목적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공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조 계획 및 자연 환기, 태양열을 이용한 천창 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실내환경을 계획했다.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끝난 후 건립에 들어간 대구육상진흥센터의 조감도.

2012년 1월 29일 대구를 '육상의 메카' 로 만들 육상진흥센터가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에서 첫 삽을 떴다. 센터 내에는 전천후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육상경기장이 마련된다. 기공식에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박정기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 대한육상경기연맹 김종운 부회장 등 육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육상진흥센터는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당시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에 제시한 공약 사항이다.

3.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최대 성과

2006년 도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에 그쳤던 한국 육상경기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트랙·필드·로드레이스 전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

메달 13개) 이후 최대 성과를 수립했다.

정순옥은 제16회 광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 육상경기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정순옥은 11월 23일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육상 여자 멀리뛰기 결선에서 6m 53을 뛰어 2위 올라 리파코바(카자흐스탄)를 3cm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순옥은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도약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첫 한국 여자 선수로 기록됐다. 100m 허들의 이연경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연경은 11월 25일 광주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0m 허들 결선에서 13초 23으로 결승선을 끊어 나탈리아 이보닌스카야(카자흐스탄·13초 24)를 0.01초 차로 제치고 1위를 했다. 이로써 임춘애가 중장거리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첫 금메달리스트였다면, 이연경은 한국 여자 트랙의 단거리 사상 첫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지영준은 대회 마지막 날인 11월 27일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11분 11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위는 기타오카 유키히로(일본·2시간 12분 46초), 3위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무바라크 하산 사미(카타르·2시간 12분 53초)가 차지했다. 1990년 베이징 대회부터 2002년 부산 대회까지 이 종목에서 4회 연속 우승을 한 바 있는 한국은 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하며 마라톤 강국의 자존심을 되찾았다.

4. 경기력 향상과 해묵은 기록 경신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경기력 향상이 나타났다. 특히 세계대회를 1년 앞둔 2010년 한 해에만 11개 종목 15명의 탐과 열정이 모두 20개의 한국기록을 수립했다. 2007년에는 8개, 2008년에는 19개, 2009년에는 11개의 한국기록이 각각 수립되었다.

해묵은 기록들도 하나 둘 경신되었다. 첫 번째가 남자 100m의 한국기록 수립이다. 2010년 6월 7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김국영이 10초 31로, 1979년 서말구가 세운 한국기록(10

초 34)을 31년 만에 갈아치웠다. 김국영은 준결선에서도 새로운 한국기록인 10초 23으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허연정은 2010년 7월 14일 일본 홋카이도 기타미 시에서 열린 호쿠렌디스턴스 챌린지대회 5차 레이스 여자 800m 결승에서 2분 04초 78로 들어와 3위를 하며 23년 만에 여자 800m 한국기록을 다시 썼다. 허연정의 기록은 1987년 최세범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한국기록(2분 05초 11)을 23년 만에 0.33초 앞당긴 것이다. 허연정은 7월 17일 일본 홋카이도 아바시리 시에서 열린 호쿠렌디스턴스챌린지대회 6차 레이스 여자 800m에서도 2분 04초 41를 기록하며 사흘 만에 다시 한국기록을 0.37초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9월 20일 허연정은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에서 열린 2010년 슈퍼트랙앤필드대회 여자 800m에서 2분 04초 12의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6위를 했다.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90회 전국체육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한국체육기자연맹 기자단 투표에서 김하나가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김하나는 대회 첫날인 20일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100m 결승에서 1994년 이영숙이 세운 한국최고기록(11초 49)에 불과 0.1초 뒤진 11초 5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다음날 벌어진 200m 결승에서 23초 69의 기록으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해 여자 200m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종전 한국기록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박미선이 세운 23초 80으로, 23년 만에 이를 0.11초 앞당겼다.

이어 김하나는 10월 22일 4×100m 릴레이에서도 정순옥·김태경·김초롱 등과 이어달려 역시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나온 종전 한국기록(45초 59)보다 0.26초 빠른 45초 33을 기록하며, 이를 연속으로 한국기록을 다시 썼다. 김하나는 10월 23일 열린 4×100m 릴레이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4관왕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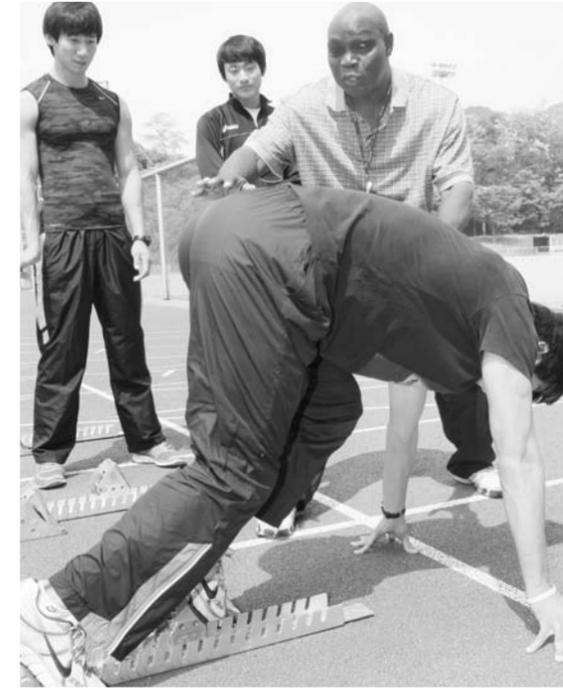
2011년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릴레이에서 잇달아 한

국신기록이 나왔다. 9월 1일 남자 4×400m 릴레이에서 박봉고·임찬호·이준·성혁제가 이어 댄 대표팀이 3분 04초 05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해, 1998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한국기록(3분 04초 44)을 13년 만에 경신했다. 9월 4일에는 4×100 릴레이 1라운드에서 여호수아·조규원·김국영·임희남이 이어 댄 대표팀이 38초 94(중전기록 39초 04)를 기록하며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풍속 초과로 공인받지 못했다.

국제대회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김현섭이 2011년 제13회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6위에 올라 한국 육상경기 사상 세계대회 첫 톱 10에 진입했다. 또 박철성(국군체육부대)은 50km 경보에서 종전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3시간 50분 11초)을 2분 58초 단축한 3시간 47분 13초의 기록으로 한국기록을 수립하며 7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박철성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현섭에 이어 두 번째로 톱 10에 진입한 한국 선수가 됐다. 2009년부터 50km 경보를 시작해 첫 경기에서 한국기록을 수립한 박철성은 이후 세 차례 참가한 경기에서 모두 한국기록을 대폭 단축했다.

2009년 7월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세르티올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에 출전한 진민섭이 5m 15를 넘어 1위를 했다. 진민섭은 한국 육상경기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장대높이뛰기가 국내를 벗어나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2009년 7월 12일 밤(한국시간) 베오그라드 FC레드스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5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멀리뛰기 결선 5차 시기에서 김덕현이 8m 20을 뛰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기존 한국기록은 2008년 10월 여수 전국체육대회에서 김덕현이 세운 8m 13이었다. 당시 김덕현은 1987년 이후 21년 만에 멀리뛰기 한국기록을 세웠다. 김덕현은 3차 시기에서는 유니버시아드 기록인 8m 40을 1cm 넘어서는 8m 41까지 뛰었지만 뒷바람이 초속 2m를 넘



자메이카 출신의 단거리 코치 리오 알만도 브라운이 2009년 5월 19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대한육상경기연맹의 현장 회의에 참가한 뒤 선수들의 자세를 교정해 주고 있다.

어(초속 3.5m)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5. 지도자 육성 인프라 구축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09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여 관리, 지원하는 등 지도체제의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그해 5월 2일부터 김천에서 열린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를 시작으로 모두 5명의 외국인 코치를 영입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이렇게 많은 외국인 코치들을 한꺼번에 데려온 것은 처음이었다. 연맹이 초청한 외국인 코치는 단거리 리오 알만도 브라운(자메이카), 허들 타바소브 세르게이(러시아),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랜들 헌팅턴(미국), 장대높이뛰기 시크리바 아르카디(우크라이



대구가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자 대한육상경기연맹과 대회조직 위원회는 국내 육상경기 심판들의 경기 운영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2011년 대회에서 이들을 현장에 투입했다. 사진은 2011년 대구 대회 현장 모습.

나), 정보 보단 브라코바스키(폴란드) 등이었다. 이미 국내에서 활동 중인 창던 지기 코치 카리 이하라이넨(핀란드)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코칭 스태프는 총 6명이었다. 12월에는 문봉기 이사를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2010년에는 육상경기 지도자 자격 연수회를 4개 과정으로 개최하고(4월, 10월, 12월), 웹사이트를 활용한 지도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 지도자 관리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팀, 소속지도자 워크숍(2월), 상반기 경기력 향상 결과 보고회(6월) 등 지도자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2011년에는 이 러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관 작업을 추진했다.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한 후 먼저 대회 운영 능력을 배양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대한육상경기연맹과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009년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대구스타디움에서 국제육상경기 연맹 기술대표를 초청해, 국내 육상경기 심판원 60명을 대상으로 경기 운영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는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위원회 심판원 30명과 16개 시·도육상경기연맹 추천자 30명이 각각 참가했다. 또한 경보 심판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 교육이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김 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6. 육상경기인들의 의식개혁 등 혁신 바람

2009년 상반기 대한육상경기연맹은 8월에 열리는 베를린 세계육상경기선수 권대회를 대비해 각 위원회 별로 총력을 기울였다. 해외 전지훈련을 연간 3회 실시하고, 현지 합동훈련 및 현지 대회 참가로 선진기술을 습득했다. 2009년 1 월부터 3월까지 자메이카, 호주, 중국, 대만 등지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7 월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하계훈련이 이어졌다. 특히 110m 허 들의 이정준은 미국에서 장기훈련(2009년 5월~12월)을 했고, 장대높이뛰기의 임은지도 2009년 7월과 8월 이탈리아 포미아에서 이신바예바 선수와 공동훈련

을 실시했다.

드디어 2009년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독일 베를린 올림픽경기장에서 제12회 베를린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렸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이 대회에 남녀 10개 종목 19명이라는 역대 최다 선수단을 파견했다. 특히 여자 장대높이 뛰기는 사상 첫 참가였다. 하지만 트랙과 필드를 통틀어 한 명도 결선에 오르지 못해 대회가 끝난 후 각계로부터 총체적 실패, 위기의 한국 육상이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지고도 분통해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패배주의와 위기 불감증이 한국 육상경기의 초상화란 말인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제12회 베를린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한국 육상경기는 새 출발을 다짐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회장단 및 임원회의를 거쳐 ‘경기력 향상을 위한 5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키로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국가대표 합동훈련 및 정신 재무장 교육을 실시하고 성공 사례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적용하는 한편, 국가대표 발대식 및 정신교육과 연맹 웹사이트의 ‘선수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갔다. 이를 통해 선수 상호간 응원, 격려 문화, 긍정 마인드를 확산하게 된 것은 물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공표하는 부분을 일종의 대국민 약속으로 인식해 기록 향상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

7. 획기적인 포상금제 도입 등 각종 시스템 구축

대한육상경기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10월 15일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한국 육상의 토대를 강화할 ‘육상경기력 향상 지원 5개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 개인 최고기록 포상제 신설, 매달 포상금도 상향 지급 ▲ 지도자 수준 향상을 위한 코치인증제 도입 ▲ 2011년 세계대회 전담 스포츠의학 지원팀 발족 ▲ 공개 채용을 통한 여성지



◀ 대한육상경기연맹은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사진은 2010년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2주간 열린 여름 합숙훈련. 이 기간 동안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육상경기 이론, 영어회화, 도핑 교육, 스포츠심리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2011년 8월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리기 전, 대구스타디움에서 꿈나무들이 스타팅 훈련을 하는 모습.

도자 및 대표코치와 매니저 영입 ▲ 해외동포 중 기대주 발굴과 지원 등이다. 기록별로 A~C급으로 분류하고 개인 최고기록을 세울 때마다 계속 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2011년 대구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10억 원(기존 1억 원), 은메달 5억 원, 동메달 2억 원 등 기존 포상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상향 조정했고, 마라톤과 경보에 대한 포상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8. 꿈나무 발굴 육성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997년부터 한 해 80명의 우수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해 왔고 2010년 3월에는 꿈나무 선수단 규모를 120명으로 늘렸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꿈나무 사업은 전담 스카우터를 두고 해외와 도서벽지에서 영재들을 발굴하고, 외국인 코치를 활용해 꿈나무 선수들에게 동·하계 집체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 2009년부터 조선일보와 함께 매년 ‘어린이육상왕대회’를 개최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는 44만 6000여 명의 관중이 들어와, 2009년 베를린 대회의 39만 7000명을 훌쩍 넘었다. 이를 계기로 육상경기에 대한 국민적 붐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했다. 2009년 9월 25일 열린 대구 국제육상경기대회는 일부 좌석을 유료화해 입장 관중 3만 5천 명 가운데 유료 관중이 9천 명에 달했다.

9. 육상경기의 국민적 붐 조성

한국 육상경기 응원 캠페인은 육상 사상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1년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매개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통해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우리는 한다! 된다! 됐다! & 한국 육상을 응원합니다'로 명명된 캠페인은 인기 아이돌 그룹, 스포츠 스타 등의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응원 구호를 영상에 담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 팬들은 웹사이트에 선수들에게 힘을 주는 글이나 한국 육상에 바라는 글을 남길 수 있고, 연맹은 인기 연예인으로 육상 단거리 달리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가수 조권과 삼성전자 모델인 한가인, 한효주의 응원 영



2011년 2월 MBC에서 방영된 '아이돌스타 육상선수권대회'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육상경기 붐 조성에 기여했다.

상을 2011년 5월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대국민 응원 메시지를 문화체육관광부, 대구시, 2011대구세계육상조직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청소년을 상대로 전국 규모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미술 공모전을 개최해 당초 예상 인원인 2천 명을 훨씬 넘는 69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아이돌 스타들이 직접 뛰는 TV육상대회도 육상경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11년 2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MBC 설 특집 '아이돌스타 육상·수영선수권대회'가 오후 8시 40분부터 각 70분 동안 방영된 결과, MBC 설 특집 '아이돌스타 육상·수영 선수권대회' 1부 시청률이 18.7%, 2부 17.6%(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전국기준)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끝난 9월 13일 방송된 '2011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대회'는 추석 연휴 기간 방송된 특집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육상경기 중흥의 날개 펴다

10. 사무국 행정 선진화

대한육상경기연맹 자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연맹 사무국 조직개편 및 행정 인력을 강화(기존 8명→13명)했다. 또한 2011년 대구 대회를 앞두고 경기력 향상 전담 인력과 사무국 내 국제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4월과 5월에는 임직원 워크숍을 실시했고, 11월 26일에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현장 총력 지원 체제 도입과 경기력 향상 중심의 체제 정비 등을 이유로 문봉기 총감독, 장재근 트랙기술위원장, 황영조 마라톤기술위원장을 선임했으며, 기존 부회장단 5명의 기능 배분과 원활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사무국 업무를 재배치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행정 및 지원을 위해 법인화를 추진해 2009년 10월 12일 법인화를 확정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11년 8월 10일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의 조직 운영 합리성과 재무 관리 개선 상태를 평가하는 경기단체 선진화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과학연구원이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대한체육회 가맹 55개 경기단체에 대한 조직 운영 및 재무 관리에 대한 선진화 종합평가를 한 결과, 최우수 단체에 선정된 육상·배구·핸드볼에 각 7천만 원을, 우수 단체에 선정된 트라이애슬론·사이클·배드민턴·태권도·산악에 각 5천만 원의 경기력 향상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 11월 12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세계육상갈라' 행사에서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공을 인정받아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제육상도시 트로피(IAAF Athletics Trophy)'를 수상했다.

제22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인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은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임직원은 스스로 이사회를 통해 다 함께 깊이 반성하고 비관과 도전 의지가 곧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 준 2011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육상경기인이 육상을 살리려고 하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고, 바로 최대 위기로 인식하고 역동적인 용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도전을 하자는 데 그 뜻을 모은다.

그 결과 2012년 중점 추진 과제로 '전략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추진' 할 것과 또한 '꿈나무와 지도자 육성에 지속 투자', 그리고 '한국육상경기 발전의 중장기 기틀 마련' 등 세 가지로 정하고 세부 전략을 세워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정했다. 또한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첫째, 한국 육상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대내외적인 활동, 둘째, 지도자를 육성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셋째,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 넷째 대외적인 행정의 창구 기능 등이다.

특히 2012년을 '희망을 배우는 일'을 당면 과제로 정해 모든 분야에서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기로 하고 추진해 나간다.

그 결과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이후 한국 육상경기가 세계 정상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해 왔던 온라인 지도자 교육훈련 시스템인 ‘육상 이러닝(e-Learning)센터’를 국내 경기단체 최초로 완료하고 6월 13일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오동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비롯한 육상경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육상지식백과사전—육상 이러닝(e-Learning)센터’로 명명된 온라인 육상 교육 훈련 시스템은 국내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선수, 지도자 교육훈련은 물론 각종 노하우를 집대성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완성한 ‘육상지식백과사전—육상 이러닝(e-Learning)센터’의 가장 큰 성과는 선진 기술 자료의 확보 및 재구성이다. 백형훈 이러닝 운영·개선위원장은 “해외 우수지도자가 왔다 가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기록을 통해 발전을 해야 함에도 선진지도법이 한국 땅에 축적되지 못하고, 외국인 코치가 한국을 떠나는 순간 그 흔적조차 남겨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었다.”면서 “톱10에 진입한 경보를 비롯해 이번 대구 세계대회를 위해 영입됐던 6명의 해외 지도자의 훈련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수록해 놓아 앞으로 우리 선수들의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수확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지원에 따라 멀리·세단뛰기, 단거리, 허들,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경보 등 7개 종목에 대한 외국인 지도 및 훈련 과정의 노하우를 동영상으로 담아 내 주요 종목의 글로벌스탠더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지도자의 훈련 프로그램을 한국화하고 스스로 자산화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지원에 따라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의 개발 기간과 총 7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지도 및 훈련 법과 주요 국제 대회 경기장면, 각종 데이터와 자료 등을 세분화하여 재편집하여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내 현장 지도자 30명을 멘토로 선정, 온라인상 현장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에게 훈련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 메일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훈련 내용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장대높이뛰기 국가대표 최윤희 선수(SH공사)는 “나도 제작에 참여했지만 이것은 육상의 선수와 지도자에게 체계적인 교육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기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알고 배워서 나중 지도자가 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다.

이 시스템은 육상경기 선수와 지도자 육성에 대한 차세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러닝(E-Learning)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자산 보유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또한 2013년 5월 대구육상진흥센터 건립에 대비해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통합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등 한국 육상으로는 세계대회를 통해 유형적으로는 전천후실내육상경기장 마련과 무형적으로는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기술교육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경기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개념 유소년학교체육프로그램 도입

이와 함께 대한육상경기연맹은 한국 육상경기 발전을 위한 두 번째 희망프로젝트로서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의 협조로 ‘신개념 유소년 학교체육 프로그램(IAAF Kid's Program)’을 전격 도입한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선수층이 얇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야 유망주를 조기에 발굴해 육상경기 선진국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을 중장기적인 학교체육 활성화에서 찾기로 하고 실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문체부 기금 지원 사업으로 7월 17일부터 약 1개월간 IAAF에서 추천한 전문강사 2명을 초빙, 프로그램 제작에 본격 착수했으며, 12월 편집 작업을 마치고 관계기관과 함께 보급과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건강과 체력향상, 학교체육 분야에 전문성을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세워 나갈 방침이다.

어린 시절의 운동 체험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육상경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육상애호가를 길러 내는 토양을 마련한다는 계획하에 중장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신개념 유소년학교체육프로그램(IAAF Kid's Program)’은 지금까지 유소년들의 육상은 대부분 어른들의 전문 육상을 모방하는 데 지나지 않음에 따라 유소년들에게 너무 이른 시기부터 엘리트 육상을 강요하여 유소년들의 조화로운 종합적 발달에 필요한 것들을 가볍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동기다.

이에 따라 국제육상경기연맹이 2001년부터 이전의 어른을 위한 육상경기 모델과는 차별화된 유소년들의 발달적 필요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육상경기를 창조해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5년, 7세에서 12세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육상경기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주된 목표는 팀워크를 기반으로 한 건강 증진, 사회 상호작용 능력 배양, 모험정신 함양 등이며, 7·8세, 9·10



대한육상경기연맹은 국제육상경기연맹 전문가를 영입해 초등학생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세, 11·12세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총 135개의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내 학교 실정상 100m 달리기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40~50m 실내의 공간만 확보된다면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순발력, 지구력, 도약력 등 종합적인 운동능력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내용의 체육 수업이 가능해 비만 방지는 물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5천 명 수준의 육상선수의 저변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육상인 선언 및 5대 희망 프로젝트 공표

한국 육상경기 분야에서도 김연아, 손연재, 양학선, 박태환 같은 스포츠 스타, 영웅을 만들어 비인기 종목의 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서 스포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1주년을 맞은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11년 9월 10일 오전 10시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육상경기 사상 처음으로 대(對)국민 결의문인 ‘신(新)육상인 선언문’을 채택하고 선언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12년 9월 10일 제2차 이사회에서 '신육상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육상이 재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신(新)육상인(HERO) 만들기, 5대 희망 프로젝트' 라는 실체적 프로그램의 수립 발표함으로써 선언의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新)육상인 선언문'은 육상경기인들이 위기 상황을 공감하고, 새로운 육상인상을 정립하여 육상종목이 국민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 경기인의 공통분모적 요소를 담은 선언적 성격의 문서로 6개의 대(對)국민 약속을 담았다.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대국민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별첨 선언문 참조)

이와 함께 중장기 실천 방안으로 수립, 발표한 '5대 희망프로젝트'는 한국 육상 경기가 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얻게 된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실질적인 중점사업, 즉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면서 더불어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모든 육상인의 개혁 운동이자 '육상 스타, 영웅(HERO) 만들기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프로젝트의 골자는 ▲ '육상 이러닝센터(e-Learning) 구축'을 통한 지도자, 선수 업그레이드, 지도자 바로 서기 ▲ 새로운 개념의 「유소년 학교체육 프

로그램(Kid's Program) 도입」 및 전국 학교 보급을 통한 재능 있는 꿈나무 발굴, 학교체육 활성화 등 저변 확대 ▲ 국가대표선수단 운영 방식 및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 '대구 실내육상경기장 및 육상아카데미' 등 선진 인프라 구축 ▲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마케팅 도입' 등 이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5대 희망프로젝트'가 희망사항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세부일정을 세워 놓고 문체부와 체육회 간 실무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일부는 이미 착수해 부분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특히 '육상 이러닝센터(e-Learning)' 구축을 통한 지도자 업그레이드는 3년간의 작업 끝에 이미 6월 중순부터 바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 2번째 희망프로젝트인 '신개념 유소년 학교체육 프로그램(IAAF Kid's Program)'은 IAAF와 7월 중 MOU를 체결하고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세계대회를 통해 얻게 된 각종 노하우와 실패사례, 문제점이 노출된 분야들을 재정리하여 향후 육상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5대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육상이 의식 개혁을 통해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였다.

대구육상진흥센터 건립

대한육상경기연맹은 2013년 6월 완공 예정인 대구육상진흥센터 즉, 실내육상경기장과 육상아카데미의 체계적인 운영 준비에 집중한다.

한국 육상 지도자와 선수들은 육상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미흡한 것이 경기력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손꼽아왔다. 하지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실내육상경기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내육상 경기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신육상인(HERO)’

▲ Hope : Vision을 공유하는 희망 = 믿음과 공정성

‘희망’은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로서 의지와 결단력이 포함된 희망 수준으로 높여 나간다.

▲ Efficacy : 목표를 높이는 자신감 = 자부심

목표 설정을 높게 하고 힘든 일을 선택하며, 도전을 즐기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 Resilience : 실패를 뛰어 넘는 힘 = 존중

문제나 실패, 역경에 직면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 오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의미한다.

▲ Optimism : 최선을 다한 낙관주의 = 재미

과거에 대해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관대하게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현재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미래의 기회를 찾는 의지 등을 낙관주의로 규정한다. 등 네 가지의 의미를 부여한다.

Fred Luthans 미국 네브래스카 경영대 교수의 긍정심리 자본 (Psychological Capital) 이론을 차용하고 참고한 것으로 한국 육상경기의 지도자와 선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라고 판단하고 이 개념을 향후 훈련,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정신교육 차원에서 적극 도입키로 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위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모여 각 개인이 소유한 ‘긍정심리’의 근간(根幹)이 되는 것이며, ‘Can Do it’이라는 긍정심리의 네 구성요소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각 개인 스스로 ‘육상영웅(Hero)’, 즉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신(新)육상인’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도 함축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실내육상경기장과 함께 스포츠과학 및 의학 연구 및 교육시설과 100명의 숙박시설을 갖춘 육상아카데미도 함께 건립하게 되어 스포츠 의·과학 지원

및 선수 발전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한국 육상경기는 그동안 동계기간 해외전지훈련 기회 부족으로 전국에 47개 전용경기장이 있으나, 실내 육상훈련 및 경기장 부재로 연 훈련일수 250일 중 170일밖에 훈련할 수 없어 경기력 강화와 육상 저변 확대에 한계를 느껴 왔다. 특히 동계 훈련 기간에는 웨이트트레이닝 위주로 훈련하나, 트랙·필드 종목은 기술 훈련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투척(원반, 해머, 창) 종목은 기구의 위험성 및 시설(잔디) 보호로 훈련장소가 한국체육대, 전남체고 등으로 한정되어 온 것도 현실이었지만 육상진흥센터 건립으로 일체 문제점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실내 육상경기장인 대구육상진흥센터는 관람석 5천석 규모의 전천후 경기와 훈련이 가능한 시설로 대구스타디움 서편에 총 사업비 732억을 투입해 연면적 2만1577㎡, 지상 4층(최고 높이 25m), 철골 space Frame(지붕) 구조로 건립된다.

대구육상진흥센터는 지난 2007년 3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시 육상진흥과 육상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육상아카데미와 실내육상경기장 건립 등 국제육상연맹(IAAF)과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한국 육상경기의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마케팅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새로운 마케팅 사업을 통해 국민에 다가가는 한편 수익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각계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육상경기를 문화 콘텐츠로서, 국민 스포츠로서 격을 높이고, 나아가 수익 창출을 도모하여 꿈나무 육성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등 엘리트 육성의 선순환(善循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 도입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러닝 페스티벌’ 개념을 적용한 스포츠 문화 사업을 전개한다. 국민들과 함께 달리고, 뛰고, 또 개인별 기록을 측정 관리하는 이벤트

를 정기적으로 열어 육상경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저변 확대는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사업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런던 올림픽대회에서 가족이 함께 육상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관중이 스스로 찾는 육상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재미와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도 크게 전환할 계획도 함께 세운다.

아울러 한국 육상경기의 선진화를 위해 장애요인이 되는 학교체육 활성화, 각종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현안 문제를 공청회, 세미나, 정부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철저한 반성과 내부기강을 다지는 등 안팎으로 쇄신을 통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조기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체제로 전환하고 과감한 선행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다.

오동진 회장은 “이 선언은 물론 국내 체육계의 조그만 한 목소리에 불과할 지도 모르지만 당사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계대회 이후 도약을 위한 스스로의 변화하는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항상 전환기 시대는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선언을 갖는 법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육상인 선언은 우리 육상인의 이상적 미래 표상을 반영한 것이다.”라며 선언의 의미를 전하고 “수없이 많이 넘어져 봤기에 일어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고, 나름 일어서는 방법도 터득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정작 한국 육상경기에 가장 필요하고 당면한 과제는 바로 ‘희망을 잃지 않는 일, 희망을 가꾸는 일’ 이라고 생각한다. ‘신육상인 만들기, 희망프로젝트’는 본질적인 탈바꿈이다. 희망은 항상 투자와 희생이 따를 것이며, 반드시 한국 육상에서 희망을 찾겠다. 아프지만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할 때”라며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도약하는 한국 육상경기를 위하여

대한육상경기연맹은 9월 18일 2012년 경기단체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경기단체 성과 평가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55개 정가맹 경기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종합 행정부문 능력 평가로 전략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핵심사업의 윤리성, 재무관리 등 3개 항목과 16개의 세부 항목을 약 4개월간 중점적으로 파악해 평가한다. 또한 최우수단체는 지난해는 육상, 배구, 핸드볼이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육상, 근대5종, 양궁 등 3개 경기단체가 선정되었다. 최우수 단체에게는 7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12년 12월 5일 진천선수촌에서 트랙·필드 선수로 구성된 국가대표선수단에 대한 입촌식을 개최하고 본격 동계훈련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성된 ‘국가대표선수단’은 이러닝e-Learning구축을 통한 지도자 육성과, 신개념 유소년 학교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육상경기저변 확대에 이어 ‘5대 한국 육상 희망프로젝트’의 세 번째 희망프로젝트로 ‘국가대표선수단’의 개편과 구성의 골자骨子는 다음과 같다.

- ▲ ‘집중 육성종목’과 ‘정책적 육성종목’ 등 8개 종목 선정, 집중 지원 및 육성
- ▲ ‘선택과 집중’ 정책에 따른 국가대표 종목과 인원의 소수정예화
- ▲ 국제대회 실전 경험이 많은 선수의 플레이코치(Playing coach) 전환 제도 첫 도입
- ▲ 기술습득과 함께 명예, 품격 갖춘 전인적(全人的) 인격체로 육성
- ▲ 신인유망주에 적극 투자해 단기성과가 아닌 2016년 이후 메달 획득 및 선순환 추진
- ▲ 높이뛰기 등 맥 끊긴 종목에 대한 부활 추진 등이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우선 47개 종목 중 세계에 경쟁력이 있고, 시급히 집중

적으로 로 육성해야 할 종목인 '집중 육성종목' 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육성종목' 으로 나누고, '집중 육성종목' 으로는 허들, 장대, 높이뛰기 등 3개 종목으로 선정했다. 또한 '정책적 육성 종목' 은 단거리, 창던지기, 멀리뛰기, 혼성경기(10종 경기), 마라톤 스피드 향상 목적의 중거리 등 5개 종목으로 선정했다.

트랙필드 기술위원회에서는 '정책적 육성종목' 중 단거리 등 부상 등으로 당장 영입할 만한 선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유망주 발굴되거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가 배출될 때 대표선수단을 별도 구성하여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대표선수단' 은 '선택과 집중' 정책에 따라 종목과 인원이 소수정예화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트랙·필드 선수가 15개 세부 종목 35명이던 것이 이번에 9개 세부 종목에 17명의 선수로 재편되어 코치 6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른 선수단의 평균 연령은 과거 만 24세에서 만 20.8세로 내려갔다.

선수 총 17명 중 9명이 첫 국가대표 선수로 입촌했고 특히 10종경기와 창던지기선수 6명 전원은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국제대회 실전 경험이 많은 선수에 대해 플레이코치로 전격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코치는 김건우, 박태경 선수로 은퇴를 앞둔 선수 가운데 우수 지도자로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도를 채택했는데 벌써 육상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4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 3개의 은메달 등 모두 10개의 메달을 획득해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최고의 성적을 배출했던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활약한 10종경기 은메달리스트 김건우와 110m 허들 동메달리스트 박태경이 남다른 리더십으로 대표선수단 후배들을 잘 이끌어 왔던 업적을 인정받아 처음 대표코치 자리에 올랐다.

선수와 함께 뛰면서 직접 가르치는 플레이코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거에

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대책 없이 퇴출했지만, 수많은 국제경기 참가 실전 경험 등과 각종 성공, 실패 사례도 노하우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어린 후배 선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치는 모두 6명으로 장대높이뛰기 아르카디, 정범철, 그리고 김기훈 코치는 유임되었다.

김건우, 박태경 이외 201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높이뛰기 은메달리스트인 김태희 전 국가대표코치가 다시 맡게 되었다. 특히 남자 높이뛰기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대회에서는 높이뛰기에서만 3명의 선수가 기준기록을 통과해 참가할 정도로 저변이 넓었고 사상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 8위에 입상했다.

현재 가능성이 보이는 높이뛰기 유망주는 5명 정도 포진되어 있어 제대로 관리하고 지원한다면 높이뛰기에서도 2016년 올림픽에서 결선 진출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육상경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0년 전인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이진택, 김태희 선수에서 맥이 끊어진 남자 높이뛰기를 당사자들이 지도자로 나서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프로젝트라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구성된 '국가대표선수단' 은 의사, 생리, 심리, 영양전문가, 체력 측정 등 다양한 스태프 등에 의해 선진 기술과 지원을 받게 되는 한편 기술 습득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에 대한 명예, 품격을 갖춘 인격체로 육성하는 과정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고자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네 번째 희망프로젝트를 향해 쉽 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도전과 희망' 그리고 '꿈과 열정' 이 그들에게는 뜨거운 심장과 같이 절대 멈추어 서서는 안될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사람' 이기보다는 '뿌리는 사람' 으로 자처한 한국 육상경기의 결실은 우리는 곧 가까운 장래에 보게 될 것이다.

신新육상인 선언문

I. 개요

1. 신육상인 선언의 지위

○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1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위기상황인 한국 육상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육상경기인의 공통분모적 요소를 담은 선언적 성격의 문서이며,

○ '신육상인HERO만들기, 5대 희망프로젝트' 라는 실제적 프로그램의 병행을 통해 동 同 선언의 구현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대한 제도와 방법과 차별화를 추구한다.

2. 신육상인 선언의 전략적 의의

○ '국민과 함께 하는 한국 체육의 중심이 되겠다' 는 비전과 함께 한국 육상의 무한한잠재력과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육상경기인의 실천 의지를 천명하고,

○ 신육상인 선언이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신육상인 선언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 기반층을 확대한다.

3. 신육상인 선언의 추진 방향

○ 대한육상경기연맹 제22대 집행부의 주간임원회의와 기술 및 발전 위원회 회의 안건을 기초로 초안 마련

○ 대한육상경기연맹 제22대 집행부의 전 임원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통한 결의

○ 신육상인 선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대내외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확산을 위해 신육상인 선언 관련 홍보 및 의견 수렴

II. 주요 내용

1. 서문

- 선언의 주체 : 제22대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회
-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한 한국 육상의 중흥의 모멘텀 필요성 상기
- 기초 종목이자 국민 스포츠로서 육상 종목의 기능과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
- '5대 희망프로젝트' 의 수립 및 실천에 대한 당위성 고취
- 한국 육상의 대외적 환경에 대한 위기 상황 인식

2. 본문

- 1항) 우리의 사명Mission과 화합·상생
- 2항) 우리의 긍정심리 및 신육상인HERO 인식 공유
- 3항) 지도자의 역할
- 4항) 선수의 자세(기록 경쟁에 대한 철학)
- 5항) 육상지도자의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 필요 (신육상인의 새로운 전통)
- 6항) 우리의 경기력 향상의 최종 목표(신육상인의 미래 추구)

III. 신육상인 선언

○ 우리는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국 해당 육상연맹 임원으로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1주년을 맞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모멘텀으로 삼아 한국 육상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실질적인 중점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중흥, 발전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세계대회를 통해 얻게 된 각종 노하우와 실패사례, 문제점이 노출된 분야들을 재정리하여 향후 육상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5대 희망 프로젝트' 를 통해 의식 개혁을 통해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추진한다.

○ 본 선언은 한국 육상의 개혁운동이자 ‘육상스타, 영웅(HERO) 만들기 캠페인’으로 ▲ ‘육상 이러닝센e-Learning 구축’을 통한 지도자 업그레이드, ▲ ‘키즈 프로그램Kid’s Program 도입’ ▲ 대표팀 운영 및 선수 육성체제 개편 ▲ ‘대구 실내육상경기장 및 육상아카데미’ 등 선진 인프라 구축 ▲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마케팅 도입’ 등 5대 희망프로젝트를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병행한다.

○ 한국 육상은 역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취학 아동 수와 취학률이 점점 감소하고 육상뿐만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를 하고자 하는 선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선수마저 다른 종목으로 다 전환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 그런 가운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긴축 분위기 속에서 팀들이 날로 축소되는 추세이며, 가까운 장래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설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큰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가대표선수 이후 대를 이을 선수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 더구나 선수마저 세계 정상이 목표가 아니고 그저 ‘현실 안주’라고 하는 환경과 의식이라면 우리에게 간단치 않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육상인이 육상을 살리려고 하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고, 바로 최대 위기인 것이다.

○ 우리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새로운 육상인 상을 정립하여 육상종목이 국민스포츠로 거듭 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신(新)육상인 선언문

1. 우리의 사명은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육성하여 국위 선양을 도모하고, 육상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해 나가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명예와 품위를 지켜 대한민국 체육계의 선도자先導者로서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신육상인이 되며, 화합과

상생相生의 정신으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다른 경기단체와 체육계에 널리 귀감이 되도록 한다.

2. 우리는 서로 비전Vision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할 수 있다Can Do it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스스로 ‘육상영웅Hero’, 즉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신육상인’으로 성장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3. 지도자는 모든 후배 지도자, 선수들이 성장하고, 무한의 도전정신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고, 고취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좌절하지 않도록 꿈과 희망의 씨를 뿌리고 받을 가는 것이다. 상호 칭찬 문화와 팀워크를 통해서 열정과 에너지를 만들어 성공의 원동력으로 세계에 도전한다.

4. 선수는 국가가 아닌 세계와 경쟁하는 불굴의 자세로서, 순위 경쟁보다 기록으로만 평가하고 보상받을 것이다. 모든 경쟁의 순위는 기록경쟁으로 나온 결과물일 뿐이라는 인식으로 국가대표가 최고 명예의 자리가 되도록 기록 향상에 매진한다.

5. 우리는 육상지도자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세계에 수출한다. 꿈을 가지고 미치도록 하겠다는 열정, 끊임없이 사명의식을 가진 숨은 지도자를 찾아 포상하고, 아낌없이 지원한다. 이것이 육상스타들을 만들어 내는 지름길이며, 그 선수들이 은퇴한 뒤 또 다시 좋은 지도자가 되는 선순환善循環 구조를 신육상인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간다.

6. 우리는 메인스타디움의 모든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가운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지도자와 선수의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한다. 그래서 육상종목이 국민 스포츠가 되어 육상경기장에 늘 육상 팬들이 가득 찰 수 있는 신육상인의 미래를 추구한다.

2012년 9월 10일
제22대 집행부 임원 28명 일동